

LEAGUE TABLE

2016 Korea Capital Market



모바일에서 바꾸면



알파원카드가 바뀐다



모든
KB국민카드를
한장으로

BE WISE KB국민 알파원카드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확인하세요



이용 전 확인사항

KB국민 알파원카드는 상품별 서비스 제공조건(할인, 한도 등)이 존재하며, 카드 신청 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 알파원카드 상품관련 세부사항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www.kbcard.com)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1588-1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161125-00698-ADP

연체료율 연 22.9%~ 26.9%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톡하면서 쏜다!

송금에서 더치페이까지 한번에 하나멤버스 V2



하나멤버스 V2 하나톡으로 채팅하면서 수수료없이 간편하게 송금하고 더치페이 기능도 스마트하게 이용하세요



League Table

2016 Korea Capital Market

- **종합**
 - 대형사만 찾는 '쏠림현상' 두드러져...투자 활기 잃었다 9/10
- **ECM**
 - 한국증·NH증 '용호상박'...결국 한국증이 웃었다 13/14
 - 대형사 IPO 휩쓴 한국증, 6년만에 IPO 주관 1위 15/16
 - 코오롱·삼성 덕분 NH증, 유증 주관 1위 17/18
 - ELB 시장 5년래 최대 호황...공모 시장만 죽었다 19/20
 - '장사 잘한' 유진·키움·유안타, 인수 수수료율 3%대 21/22
 - 수수료 덩핑시대 끝? ECM 수수료, 질과 양 모두 '성장' 23/24
- **DCM**
 - KB증의 6년 아성, NH·한국증이 갭 수 있을까 27/30
 - SK가 먹여 살린 회사채 시장...외형 축소는 불가피 31/32
 - 은행채 시장, 발행 1위 신한銀·주관 1위 하나금투 33/34
 - 5년 만에 존재감 바닥 된 채권시장 35/36
- **M&A**
 - 모건스탠리·크레디트스위스, M&A 재무자문 1위 39/10
 - 한국 M&A 시장에서 설 자리 잃어가는 외국계 IB 41/42
 - 삼일PwC, 올해 회계자문 1위 수성 43/44
 - 기델 곳은 '삼성'뿐?...삼성 따라 해외 나간 회계법인 45/46
 - 김앤장, '거대 건수로 지켜낸 M&A 법률자문 1위' 47/48
 - 압도적 '숫자'에도 '위기설' 사그라지지 않는 김앤장 49/50
 - NH증, 2년 연속 M&A 인수금융 주선 1위 51/52
 - 2016년 인수금융 주선 시장...상반기엔 리파이낸싱 하반기엔 소형거래만 53/54
 - 국내기업 '해외로'...역동성 떨어진 국내 M&A 시장 55/56
- **회사 소개** 57/62

이마라인의 각도 하나
구레나룻 하나까지
세심하고 까다롭게 주문하는
당신에게 맞춥니다



자극히 개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



혁신적인 QV포트폴리오를 통한 QV만의 입체적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경험하십시오

위험관리는 적극적으로

Risk Budgeting에 기반한 NH투자증권만의 독자적인 모델을 도입, 위험을 적극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실 수 있습니다.

배분전략은 현실적으로

유망자산으로 압축된 포트폴리오를 제시함으로써 기관투자자와 달리 개인투자자들의 제한된 자금을 갖춘 현실적 분산전략을 제시합니다.

상품제안은 구체적으로

자산배분에서 끝나는 기존 자산관리와 달리 차별화된 노하우로 최적의 상품만을 엄선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NH투자증권 자산배분 전략위원회 전문가들이 주단위, 월단위 회의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안심 관리해드립니다.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하기 전 영업직원으로부터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본 서비스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원금의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invest chosun

League Table

2016 Korea Capital Market

• 발행인 겸 편집인
방정오

• 에디터
김민열 본부장 mykim@chosun.com

• 취재
현상경 부장 hsk@chosun.com
이도현 팀장 dohyun.lee@chosun.com
이재영 팀장 leeje@chosun.com
이서윤 기자 syoon@chosun.com
위상호 기자 wish@chosun.com
김은정 기자 ejk0829@chosun.com
양선우 기자 thesun@chosun.com
한지웅 기자 hanjw@chosun.com
조윤희 기자 choyh@chosun.com
차준호 기자 chacha@chosun.com
경지현 기자 peakhyun1231@chosun.com
김진욱 기자 marketwarrior@chosun.com

• 디자인 · 그래픽
윤수민 기자 soom92@chosun.com

• 광고
김현석 부장 khs1813@chosun.com
김민조 aksuaaaa@chosun.com

• 콘텐츠 및 광고, 사업안내
고아라 goara@chosun.com
신은비 seb0416@chosun.com
Tel : 02-3789-9711, 9710
Fax : 02-3789-9719
E-mail : investid@chosun.com

대형사만 찾는 '쏟림현상' 두드러져...투자 활기 없었다

현상경 기자 | hsk@chosun.com

경기 침체에 기업도 위축
상위권 쏟아림현상..."찾는 곳만 찾는다"
먹거리 감소... ECM만 그나마 온기

올 한해 국내 자본시장(Capital Market)을 규정짓는 키워드는 '탈(脫)자문사', '자본확충' 그리고 '쏟림현상' 등으로 요약된다. 대기업들은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한 만큼 큰 설비투자나 M&A에 나서는 대신, 계열사 및 사업부 재정비 혹은 오너가 승계나 지배구조 개선에만 집중했다. 이로 인해 자금조달을 도와주거나 컨설팅과 자문을 제공하면서 일거리를 얻는 은행, 증권사, 자문사들의 전통적인 일감이 크게 줄어들었다.

대신 경제 생동감 확보를 위해 뒷받침돼야 할 한계기업 구조조정은 정부의 헛발질 정책과 무능으로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다. 여기에 국정농단과 탄핵정국으로 하반기 자본시장은 거의 멈춰서다시피했다.

그나마 주목을 받은 바이오-제약 부문의 신성장 기업들로 인해 주식 관련 시장이 반짝 성장세를 보였으나 향후 추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로 꼽힌다. 그 와중에 '안전하게 운영하라'는 취지로 확대되는 증권사·보험사·은행들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자본규제로 인해 국내 금융회사들은 앞다퉈 자본확충 방안을 찾는 데 급급해야 했다.

전통적인 주식(ECM)-채권(DCM)-인수합병(M&A) 부문에서 체감 냉기가 가장 심했던 곳은 회사채 시장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주요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맡았지만 이제 위상 자체가 크게 떨어졌다. 100조원에 달했던 국내 채권시장이 올해는 80조원으로 줄었다. 비금융기업들이 발행하는 일반 회사채 규모만 2011년 57조원에서 올해 23조2500억원대로 발행량이 급감했다.

결국 경기 침체와 경쟁력 약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대비 대신 '몸사리기'에 치중한 기업들의 현황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의 회사채 발행은 5년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매각 및 합병으로 발행 계열사 수가 줄기도 했고, 회사채 시장 단골이었던 중후장대(重厚長大) 계열사들이 자취를 감췄다. 조선과 건설은 그룹 재무건전성의 발목을 잡으면서 시장의 외면을 받았고, 업황 개선 효과를 본 정유·화학사들은 유입 현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순상환 기조로 바뀌었다. 사업 확장보다 재무건전성 개선이 더 중요해지면서다. 채권을 '찍기' 만 하면 팔리던 시대는 끝났다.

반면 불황의 장기화 가능성으로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한층 높아졌다. 대기업 계열사라고, 신용등급이 높다고 무조건 발행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꾸준한 현금흐름을 낼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야 투자 대상이 됐다. 대내외 시장 환경이 악화하고 있어 이런 투자자들의 보수화 기조는 이어질 기세다. 비우량기업들은 높아진 자금조달 문턱에 당장 내년 차입금 상환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상대적으로 주식 시장은 나름 풍성한 한 해를 보냈다.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기업들의 상장(IPO) 및 자금조달이 늘었고, 구조조정 기업들의 자본확충 수요도 커진 덕분이다. 사모 거래 포함 주식 시장을 통한 국내 기업 총 자금 조달 규모는 2011년 29조8000억원에서 올해 54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이 급증했다. 올해 유상증자 총 발행 규모는 41조7800억원으로 2011년(20조3300억원) 대비 무려 두 배 이상 커졌다.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상선, 한화투자증권 등 굵직한 대기업 계열사 거래가 시장을 이끌었다.

또 BNK금융지주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본을 늘려야 하는 금융회사들의 증자도 잇따랐다. 회사채 시장의 단골고객이던 이들은 늘어나는 부채에 부담을 느끼며 자본성 자금 조달로 방향을 선회했다.

반면 주식연계증권(ELB) 시장은 공모·신주인수권부사채(BW) 위주에서 사모·전환사채(CB) 위주로 완전히 반전했다. 2011년 2조9000억원 규모로 발행됐던 BW는 올해 4500억원 규모로 명맥만 간신히 유지했다. 같은 기간 1조8000억원 수준이던 CB 발행 시장은 4조9700억원으로 커졌다. 2013년 분리형 BW 발행 금지 규제가 분수령이었다. 이는 올해 주식 시장 공모 거래를 통해 증권사들이 벌어들인 수수료 규모가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총 수수료 규모는 1902억여원으로 2011년의 두 배에 달했다.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도 완화되며 인수금액 대비 평균 수수료율도 1.5%로 상승 추세다.

내년에도 롯데그룹과 게임·바이오 기업, 보험사 등 주식 시장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증권사는 관련 인력을 보강하며 시장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

새 먹거리를 찾거나 비핵심사업을 매각하려는 M&A시장은 '파는 곳만 팔고, 사는 곳만 사는' 시장으로 변모해갔다. 올 한해 대기업들은 삼성, CJ, 한화 등을 제외하고는 자산매각이나 기업소평에 나서는 곳이 드물었다. 이재용 부회장 시대를 대비한 삼성그룹만 '뭉텅이'로 사업부나 계열사를 매각하면서 미래를 위해 10조원에 달하는 M&A는 거침없이 단행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그간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외국계 증권사(IB)나 회계법인, 법무법인의 활동 공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축소됐다. "시장도, 업황도, 경쟁사 현황도 IB나 회계법인보다 기업이 더 잘 아는데 굳이 자문을 쓸 이유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답을 내기 어려워졌다.

이 같은 현상들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투자은행(IB) 업계의 먹거리를 줄일 전망이다. 일례로 회사채 5조원 이상 주관 증권사가 2011년 8개사에서 2016년 3개사로 줄었다. 상위 3사의 실적 비중은 이제 50%에 육박한다. 수요예측 결과가 중요해지면서 투자자 확보에 보다 유리한 대형사 위주의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동시에 그 먹거리가 몇몇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시장은 커졌지만 '찾는 증권사만 찾는' 양극화는 심해졌다. 주관 금액 기준 상위 2개사의 점유율은 45.6%로 2011년 37.7%를 크게 웃돌았다. 주식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실패가 평판 리스크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자본력과 트랙레코드를 갖춘 대형사를 찾는 일이 찾아진 까닭이다. M&A시장에서도 대형 IB가운데 상위권 3개사 정도 이외에는 점점 더 활동공간을 찾아내기 쉽지 않아졌다.

결국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한국 자본시장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라는 암울한 평이 적지 않다. 이런 단점을 그나마 기업과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생동감'과 '역동성'으로 극복하면서 동력을 발굴했는데 이를 상실하면서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 매년 새해에 대한 자본시장 전망은 암울했지만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러운 안개가 짙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CM 리그테이블 발표 기준

1. 대표주관·공동주관을 별도로 집계한다. 인수 실적은 주관 실적과 구분해 별도로 발표한다.
2. 모집주선은 주관 및 인수실적에서 제외하며 별도로 집계해 발표한다.
3. 대표·공동주관사에 포함돼 있지 않은 단순 인수단의 인수금액은 대표주관사 실적에 합산한다. 공동주관사는 자신의 인수금액만 주관실적으로 인정한다.
4. 주선실적과 인수실적, 모집주선실적은 원화를 기준으로 한다. 단, 외화표시 주식연계증권의 경우 증권신고서상 달러/원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IPO 집계 기준

1. 거래금액
 - 금액은 고려하지 않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공시된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 최종 발행가액을 고려한 상장 금액을 기준으로 최종 공모 금액을 산정한다.
2. 집계대상
 - 국내 주식시장(코넥스 제외)에 최초로 상장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의 경우도 집계한다.
 -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제외한다.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반영한다. 다만 SPAC 수수료는 상장 보수만을 반영한다.
 - 국내 회사라도 해외에 상장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거래지역
 - 국내
4. 거래자
 - 국내 법인
 - 해외 법인이라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엔 실적에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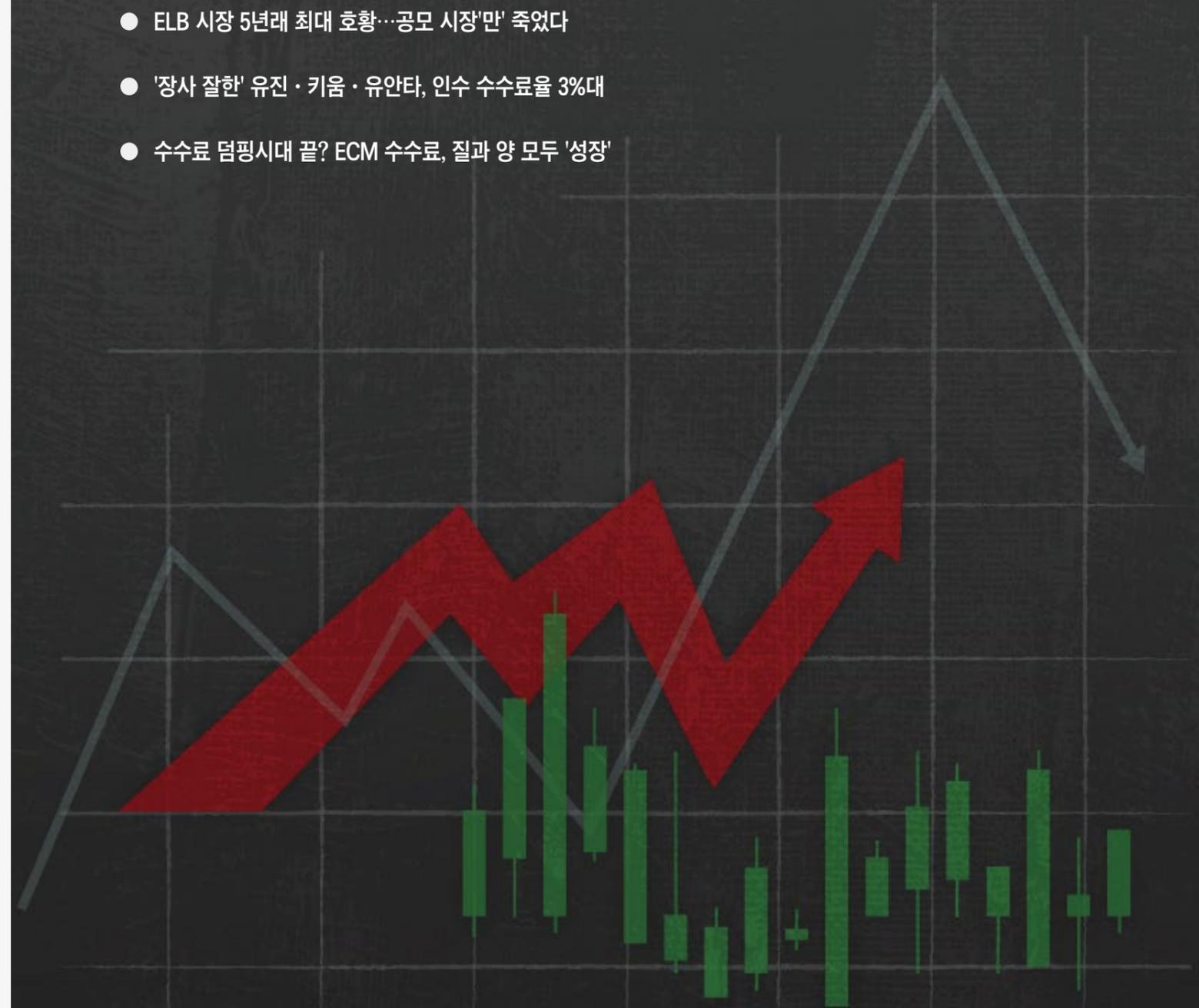
유상증자 집계 기준

1. 거래금액
 - 금액은 고려하지 않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공시된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 최종 발행가액을 고려한 상장 금액을 기준으로 최종 공모 금액을 산정한다.
2. 집계대상
 - 공모와 사모로 발행된 주식(비상장주식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3. 거래지역
 - 국내 및 글로벌 시장
4. 거래자
 - 국내 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경우
 - 국내 법인이 해외 주식시장에서 주식예약증서(DR)를 발행하는 경우, 국내에서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예약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집계에 포함한다.

주식연계증권(ELB) 집계 기준

1. 거래금액
 - 금액은 고려하지 않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공시된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2. 집계대상
 - 국내에서 공모와 사모로 발행된 주식연계증권(CB·EB·BW)을 대상으로 집계한다.
 -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는 포함하지 않는다.
3. 거래지역
 - 국내
4. 거래자
 - 국내 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경우

- 한국證·NH證 '용호상박'...결국 한국證이 웃었다
- 대형사 IPO 휩쓴 한국證, 6년만에 IPO 주관 1위
- 코오롱·삼성 덕본 NH證, 유증 주관 1위
- ELB 시장 5년래 최대 호황...공모 시장'만' 죽었다
- '장사 잘한' 유진·키움·유안타, 인수 수수료를 3%대
- 수수료 덩핑시대 끝? ECM 수수료, 질과 양 모두 '성장'



한국證·NH證 '용호상박'...결국 한국證이 웃었다

이재영 기자 | leeji@chosun.com

한국證, 11월 바이오로직스·팍켈 '몰아치기'
 NH證, 인수 1위 '체면치레'...미래대우·신한證 뒤 이어
 외국계 증권사는 IPO 시장 제외 '실종'

● 전체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	건수	점유율(%)
1	한국투자증권	3,065,707	27	24.18
2	NH투자증권	2,717,131	20	21.43
3	미래에셋대우	1,126,000	10	8.88
4	신한금융투자	718,823	21	5.67
5	JP모건	641,490	2	5.06
6	씨티	635,516	1	5.01
7	대신증권	413,301	7	3.26
8	크레디트스위스	407,270	2	3.21
9	KB투자증권	404,786	13	3.19
10	동부증권	355,504	7	2.8
11	유진투자증권	350,467	13	2.76
12	신영증권	261,001	4	2.06
13	이베스트투자증권	184,375	10	1.45
14	하나금융투자	171,226	8	1.35
15	삼성증권	158,940	4	1.25
16	현대증권	154,814	5	1.22
17	키움증권	152,460	9	1.2
18	SK증권	131,600	2	1.04
19	KTB투자증권	115,457	3	0.91
20	미래에셋증권	112,810	4	0.89

● 전체 인수

(단위: KR/백만원)

순위	주관사	금액	건수	점유율(%)
1	NH투자증권	2,406,511	21	19.03
2	한국투자증권	2,291,807	31	18.12
3	신한금융투자	998,782	24	7.90
4	미래에셋대우	921,964	11	7.29
5	KB투자증권	656,116	17	5.19
6	JP모건	641,490	2	5.07
7	하나금융투자	457,777	11	3.62
8	씨티	449,923	1	3.56
9	삼성증권	440,580	7	3.48
10	대신증권	428,936	10	3.39
11	크레디트스위스	407,270	2	3.22
12	유진투자증권	394,712	17	3.12
13	동부증권	361,955	10	2.86
14	한화투자증권	230,639	7	1.82
15	이베스트투자증권	184,131	14	1.46
16	신영증권	165,990	5	1.31
17	현대증권	154,814	5	1.22
18	한양증권	153,651	16	1.21
19	키움증권	152,460	9	1.21
20	유안타증권	133,574	9	1.06

*2016년 12월 12일 기준

2016년 국내 주식시장(ECM) 리그테이블 주관 부문에서 한국투자증권이 1위를 차지했다. 3분기까지 앞서 있던 NH투자증권을 11월 한 달 만에 뒤집으며 따낸 역전승이다. NH투자증권은 인수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체면을 세웠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1위 다툼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6년 한 해동안 27건의 거래를 주관하며 3조657억원의 주관 실적을 쌓았다. 2위 NH투자증권을 불과 3500억여원 차이로 따돌렸다. 2013년 이후 3년 연속 ECM 주관 부문 1위를 차지했던 NH투자증권은 아쉽게 2위에 머물렀다.

두 회사의 주관 부문 점유율을 합치면 45.6%에 이른다. 올 한 해 동안 시장에 있었던 딜의 절반(금액 기준)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손을 거친 셈이다. 3위 미래에셋대우도 1조1260억원의 주관 실적을 올리며 분전했지만, '양강 구도'를 흔들지는 못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연초 NH투자증권과 함께 삼성엔지니어링의 1조2651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공동 대표주관하며 쾌조의 출발을 했다. 이후 두 증권사는 올해 내내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 NH투자증권이 코오롱 계열사 증자와 해태제과 상장 등 중견기업 기업 거래에서 차곡차곡 실적을 쌓으며 한발 앞서 나가는 구도가 펼쳐졌다.

판이 뒤집어진 건 11월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최대 공모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대어(大魚) 두산팍켈 기업공개(IPO)를 잇따라 대표주관했다. 두 거래 모두 국내사로는 유일하게 대표주관을 맡으며 1조원의 주관 실적을 쌓았다. 이후 12월에도 4곳, 600억원 규모의 중소형사 상장을 주관하는 뒷심을 발휘하며 1위 탈환에 성공했다.

NH투자증권은 예상 시가총액 10조원의 넷마블게임즈가 내년으로 상장을 미루는 등 IPO 부문에서 연초 기대보다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유상증자 부문에서는 간발의 차이로 1위를 사수했지만, IPO 부문에서 실적차가 벌어지며 2위에 만족해야 했다.

다만 NH투자증권은 인수 부문에서는 2조4065억원의 인수 실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른 공동주관사나 인수사를 끼지 않는 단독 주관·인수 거래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말 합병이 끝나면 국내 최대 자본을 보유하게 되는 미래에셋대우는 3위에 올랐다. 상반기 GS글로벌 증자와 11월 삼성중공업 증자 대표주관을 따낸 덕분이다. IPO 부문에서도 대림씨엔에스, 용평리조트 등 굵직한 증권사 거래를 담당했다.

4위는 신한금융투자였다. 신한금융투자는 중견·중소기업 연말 자본확충 거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4분기에만 8건의 유상증자를 맡아 1743억여원의 실적을 쌓았다. 인력을 총원하고 조직을 개편하며 ECM에 힘을 실은 대신증권과 KB투자증권도 4000억원 안팎의 실적으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외국계 증권사 중에서는 JP모건이 두산팍켈 대표주관, 삼성바이오로직스 공동주관을 맡으며 가장 많은 6414억여원의 실적을 쌓았다. 씨티와 크레디트스위스가 뒤를 이었다.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이 끊기고 공모 주식연계증권(ELB) 발행 시장이 위축되며 IPO 외 분야에선 외국계 증권사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ELB 부문은 아이에스동서 전환사채(CB) 발행을 단독 주관한 동부증권이 1위, 두산건설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맡은 신영증권이 2위를 차지했다. 자문사가 드러나지 않는 사모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며 순위 구분에 큰 의미가 없어졌다.

모집추선 부문에서는 7월 현대상선의 대규모 출자전환 유상증자를 담당했던 미래에셋대우가 1위를 차지했다.

대형사 IPO 휩쓴 한국證, 6년만에 IPO 주관 1위

조윤희 기자 | choyh@chosun.com

10월~12월 IPO 총 39건 진행, 누적 규모 4조4000억원

27건 주관한 한국투자증권 주관 실적 1위

삼성바이오로직스·두산밥캣이 순위 갈라

● IPO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	건수	점유율(%)
1	한국투자증권	1,398,812	16	21.45
2	NH투자증권	928,944	11	14.24
3	JP모건	641,490	2	9.84
4	씨티	635,516	1	9.75
5	크레디트스위스	407,270	2	6.25
6	미래에셋대우	405,538	8	6.22
7	신한금융투자	387,230	8	5.94
8	대신증권	343,938	5	5.27
9	KB투자증권	229,974	10	3.53
10	하나금융투자	171,226	8	2.63
11	삼성증권	158,940	4	2.44
12	키움증권	142,727	8	2.19
13	유진투자증권	124,828	2	1.91
14	미래에셋증권	112,810	4	1.73
15	신영증권	105,050	2	1.61
16	HSBC	81,076	1	1.24
17	유안타증권	58,620	3	0.9
18	한화투자증권	54,050	1	0.83
19	현대증권	31,602	1	0.48
20	동부증권	26,250	1	0.4

● IPO 인수

(단위: KR/백만원)

순위	주관사	금액	건수	점유율(%)
1	한국투자증권	1,193,323	17	18.39
2	NH투자증권	896,742	11	13.82
3	JP모건	641,490	2	9.89
4	씨티	449,923	1	6.93
5	삼성증권	440,580	7	6.79
6	크레디트스위스	407,270	2	6.28
7	신한금융투자	403,330	9	6.22
8	미래에셋대우	358,588	8	5.53
9	대신증권	340,054	6	5.24
10	KB투자증권	260,187	12	4.01
11	하나금융투자	185,540	9	2.86
12	키움증권	142,727	8	2.20
13	유진투자증권	129,045	3	1.99
14	신영증권	110,039	3	1.70
15	미래에셋증권	109,708	4	1.69
16	HSBC	81,076	1	1.25
17	한화투자증권	71,632	3	1.10
18	동부증권	41,593	3	0.64
19	유안타증권	36,210	3	0.56
20	현대증권	31,602	1	0.49

*2016년 12월 12일 기준

올해 기업공개(IPO) 주관 순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두산밥캣이 판을 좌우했다. 이들 거래의 주관사단이 고스란히 상위권을 차지했다. 양사의 기업공개(IPO)에 모두 참여한 한국투자증권은 2016년 누적 주관순위 1위에 올랐다.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인베스트조선이 집계한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상장한 기업은 총 39건이다. 4분기 공모규모는 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4분기에 IPO가 집중됐다. 올 한 해 상장한 기업수는 모두 85개로, 공모규모는 약 6조5400억원이다. 2016년 상장 기업의 45%는 이번 4분기에 상장한 셈이다. 공모규모의 67%도 지난 10월~12월에 진행된 IPO가 차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두산밥캣의 상장이 지난 11월에 진행된 데 따른 결과다. 각각 2조2500억원과 900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밥캣은 올해 IPO 주관사 순위도 바뀌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16건의 기업 공개에 참여해 주관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삼성생명 상장을 주관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올 해 누적 주관 규모도 1조3988억원에 달했다. 주관 규모 1조원 이상을 달성한 것 역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그간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에 밀리지만 했던 '한(恨)'을 풀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11월을 기점으로 한국투자증권의 주관 건수와 금액은 크게 증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두산밥캣을 포함한 7개 기업을 지난 4분기 상장 주관 하면서 무려 1조원의 실적을 쌓았다.

2위는 9000억원의 주관 실적을 쌓은 NH투자증권이 차지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3분기까지 3개 기업을 상장하는 데 그쳤지만, 4분기에는 8개 기업을 상장시켜 약 7500억원의 주관 실적을 올렸다.

3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두산밥캣의 상장 주관을 맡은 JP모건이 차지했다.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은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단 한 건으로 6355억원의 주관실적을 올려 4위에 올랐다.

주요 대형 IPO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미래에셋대우는 6위에 올랐다. 미래에셋대우의 올해 주관 건수는 총 8건으로 4050억원의 실적을 내는 데 만족해야 했다. 호텔롯데 상장이 무산됐고,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상장이 미뤄지면서 주관규모 순위에서도 밀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내년에는 대규모 IPO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넷마블게임즈를 주관하는 NH투자증권의 약진이 내년 돈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호텔롯데의 상장 재추진 여부가 리그테이블 주관 순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삼성 덕본 NH證, 유증 주관 1위

조윤희 기자 | choyh@chosun.com

4분기 유상증자 총 39건 2조7000억원 규모

주관 순위 1위 NH證·모집주선 1위 미래에셋대우

중소기업 집중 신한금융투자 약진

● 유상증자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	건수	점유율(%)
1	NH투자증권	1,788,187	9	32.92
2	한국투자증권	1,656,894	10	30.50
3	미래에셋대우	720,461	2	13.26
4	신한금융투자	331,592	13	6.10
5	이베스트투자증권	184,375	10	3.39
6	유진투자증권	178,639	8	3.29
7	동부증권	129,254	5	2.38
8	KTB투자증권	115,457	3	2.13
9	현대증권	108,212	3	1.99
10	대신증권	69,362	2	1.28
11	KB투자증권	49,812	2	0.92
12	골든브릿지투자증권	28,250	1	0.52
13	한양증권	25,200	1	0.46
14	하이투자증권	16,896	1	0.31
15	유안타증권	14,253	1	0.26

● 유상증자 인수

(단위: KR/백만원)

순위	주관사	금액	건수	점유율(%)
1	NH투자증권	1,509,768	10	27.79
2	한국투자증권	1,048,483	11	19.30
3	신한금융투자	595,451	15	10.96
4	미래에셋대우	563,375	3	10.37
5	KB투자증권	315,929	4	5.82
6	하나금융투자	272,237	2	5.01
7	유진투자증권	200,667	10	3.69
8	이베스트투자증권	161,791	12	2.98
9	동부증권	120,362	6	2.22
10	한화투자증권	119,007	2	2.19
11	현대증권	108,212	3	1.99
12	한양증권	104,433	12	1.92
13	대신증권	88,882	4	1.64
14	KTB투자증권	86,648	3	1.59
15	유안타증권	47,364	3	0.87

*2016년 12월 12일 기준

4분기에도 반전 없이 유상증자 주관 부문에서 양강체제를 구축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2016년 누적 주관순위 1.2위를 차지했다.

인베스트조선이 집계한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올해 공모로 진행된 유상증자는 총 89건으로 8조2000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NH투자증권이 간발의 차로 한국투자증권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NH투자증권의 누적 주관 규모는 1조7800억원으로 올해 9건의 유상증자를 주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10건의 유상증자를 주관했지만 1조6500억원의 주관 금액을 기록해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주관 순위, 기업공개(IPO) 주관 순위, 유상증자 주관 순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던 NH투자증권은 올해엔 유상증자 1위만을 지키며 체면치레를 했다.

다만 NH투자증권은 '기업 고객관리'에서 업계 톱 증권사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유상증자 주관 1위의 원동력이 됐다. 삼성그룹과의 인연을 이어 나가며 연초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 공동 대표주관을 맡은 게 대표적이다. 한화와 한화투자증권 증자를 잇따라 맡으며 한화그룹과도 돈독한 관계임을 증명했다.

코오롱플라스틱과 코오롱생명과학 증자를 단독 주관한 것 역시 고객관리의 힘이다. NH투자증권은 2009년 코오롱 지주사 전환을 맡으며 사실상 코오롱그룹의 인하우스(In-house) 증권사로 활약하고 있다. 코오롱그룹의 자본시장 거래는 거의 대부분 NH투자증권을 통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지난 11월 삼성중공업 유상증자를 주관해 5000억원을 추가 누적했다. 이외에도 인터플렉스와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등 2건의 유상증자를 주관하며 4분기 분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NH투자증권의 실적을 넘진 못했다.

올해 유상증자 부문에서는 신한금융투자의 약진이 돋보인다. 올 한해 총 13곳을 주관하며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신한금융투자는 4위에 올랐다. 지난해 신한금융투자는 1300억원의 실적을 누적해 8위에 머물렀다. 올해는 4분기에만 9건의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누적 주관 규모 3300억원을 기록했다. 주로 중견·중소기업의 자본확충에 집중하는 모습이였다.

미래에셋대우는 올 한 해 1조4000억원의 실적을 쌓아 지난 3분기 말에 이어 유상증자 모집주선 순위 1위에 올랐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7월 현대상선의 대규모 출자전환 유상증자를 진행한 바 있다.

ELB 시장 5년래 최대 호황...공모 시장만 죽었다

이재영 기자 | leeje@chosun.com

동부증권 주관 1위지만...실적 1건 불과
 ELB 6兆 발행, 분리형 BW 금지 전보다 많아
 공모 빠진 자리, 산은·부티크·증권사 차지

● ELB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	건수	점유율(%)
1	동부증권	200,000	1	27.51
2	신영증권	150,000	1	20.63
3	SK증권	125,000	1	17.19
3	KB투자증권	125,000	1	17.19
5	유진투자증권	47,000	3	6.46
6	엘아이지투자증권	30,000	1	4.13
7	현대증권	15,000	1	2.06
7	에이치엠씨투자증권	15,000	1	2.06
9	한국투자증권	10,000	1	1.38
9	유안타증권	10,000	1	1.38

● ELB 인수

(단위: KR/백만원)

순위	주관사	금액	건수	점유율(%)
1	동부증권	200,000	1	27.51
2	KB투자증권	80,000	1	11
3	SK증권	70,000	1	9.63
4	유진투자증권	65,000	4	8.94
5	신영증권	50,000	1	6.88
5	유안타증권	50,000	3	6.88
6	한국투자증권	50,000	3	6.88
8	한양증권	45,000	3	6.19
9	한화투자증권	40,000	2	5.5
10	엘아이지투자증권	22,000	2	3.03

*2016년 12월 12일 기준

주식연계증권(ELB) 발행 규모가 최근 5년새 최대를 기록했다. 연간 발행 규모가 총 6조원을 넘어섰지만 '아는 사람만 아는 시장'이 됐다. 정부의 규제로 인해 사모 시장이 비대칭적으로 커진 결과다.

주식시장(ECM) ELB 부문 주관 1위는 동부증권이, 2위는 신영증권이 차지했다. 공모 시장이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 대형 거래 한 건만 수주해도 1위에 오를 수 있어 순위에 큰 의미는 없다는 지적이다.

올 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EB), 교환사채(EB)의 총 규모는 6조956억원에 달한다. 지난해(3조9506억원)보다 크게 늘었고, 2014년(3조3056억원)의 두 배 수준이다. 모두 324개 기업이 551건의 ELB를 발행했다.

이는 분리형 BW의 발행이 금지되며 시장이 크게 위축되기 전인 2013년 이전 시장 규모도 뛰어넘는 것이다. ELB 발행이 가장 활성화됐던 지난 2011년의 총 발행 규모는 5조4873억원이었다.

보기 드문 호황이었지만, 시장에서 상품으로 ELB를 접하기는 쉽지 않았다. 공모 ELB 발행은 7300억여원으로 전체 ELB 시장의 12%에 불과했던 까닭이다. 나머지 5조3657억원의 ELB는 사모로만 발행됐다.

시장이 작다보니 대형 거래 한 건으로 순위가 갈렸다. 1위인 동부증권은 아이에스동서 2000억원 CB 발행을 단독 주관했다. 2위인 신영증권은 1500억원 규모 두산건설 BW의 대표주관사였다. 한화건설 2500억원 EB를 공동 주관한 SK증권과 KB투자증권이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공모가 사라진 시장은 부티크, 운용사, 국책은행, 증권사들이 차지했다. 2012년부터 ELB 전문 사모투자자로 이름을 알린 시너지파트너스가 올해에만 총 25건, 3464억여원 규모 ELB 발행에 참여했다. ELB 사모 인수량으로는 1위다.

한국산업은행도 8건의 발행에 참여해 3072억여원의 CB와 BW를 인수했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이전부터 꾸준히 사모 메자닌 투자를 해왔다. NH투자증권(2636억원, 7건), 메리츠증권(1800억원, 3건), 삼성증권(1170억원, 3건)도 사모 시장 단골이었다. 자기자본투자(P)는 물론, 전량 인수 뒤 이를 나누어 매매(sell-down)하려는 목적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투자자들도 눈에 띄었다. 파인아시아운용, 라임자산운용, 수성에셋투자자문, 와이비파트너스 등이 500억~1000억원 규모의 사모 ELB 투자를 단행했다. 캐피탈·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주로 투자하던 사모 ELB의 투자 저변이 넓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올 초까지만 해도 공모 분리형 BW가 재하용되며 '큰 장'이 설 거라는 예상이 많았다. 현실은 예상을 빚나갔다. 그 배경으로는 지난해 발행된 현대상선 BW가 꼽힌다.

지난해 9월 1500억원 규모 BW를 발행한 현대상선 공모 청약엔 당시 4조원의 자금이 몰렸다. 시선이 쏠렸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추가 급락으로 인해 신주인수권은 현재 휴지조각이 됐다. 행사가격은 3만8000원대지만, 현 주가는 7000원선에 머물고 있다. 만기 상환 여부조차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상선이 부정적인 선례를 남기자 공모 ELB 시장은 크게 위축됐다. 간간히 공모 시장에 나오는 ELB엔 꾸준히 초 단위 자금이 몰렸지만, '부실 기업'으로 낙인찍힐까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공모 발행에 나서지 않았다.

내년에도 이런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일부 기업이 사실상 분리형 BW처럼 활용하고 있는 '콜옵선부CB'에 금융당국이 감시의 손길을 뻗은 게 변수다. 콜옵선부CB도 규제당하면 사모 시장도 일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사 잘한' 유진·키움·유안타, 인수 수수료율 3%대

조윤희 기자 | choyh@chosun.com

유진,키움,유안타 2016년 올해 수수료율 상위권 기록

키움, 중소기업 대상 종합 컨설팅 효과

유진 '양보단 질'·유안타 '정상화'

2016년 주식자본시장(ECM) 시장에서는 키움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의 행보가 돋보였다. 대형사에 비해 주관 금액은 적었지만 수수료율은 대형사보다 월등히 좋은 조건이었다. 양보다 질을 선택한 전략이 효율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인베스트조선 2016년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ECM 부문에서 올해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기록한 증권사는 모두 중형 증권사였다. 입찰 건수는 많지 않지만 높은 수수료를 받으며 실속을 챙긴 것이다.

상위 1~3위를 차지한 키움증권과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은 올해 ECM 시장에서 3% 이상의 수수료율을 받았다. 올해 ECM 평균 수수료(모집주선 포함)가 1.5%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이 상당히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키움증권은 올해 ECM 딜 평균 수수료율 3.97%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키움증권은 올해 8건의 기업공개(IPO)와 1건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총 1525억원의 인수 실적을 쌓았다. 올해 ECM 딜로 벌어들인 수수료는 60억원이다.

키움증권은 특히 IPO에서 큰 수익을 냈다. 키움증권이 주관한 8건의 IPO 평균 수수료율은 4.18%다. IPO 시장에서 주관사들이 받는 수수료율이 1~2%대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심지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두산밥캣 등 대기업 IPO에는 참여하지도 않았다. 중소기업과 기술특례 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계약을 맺었다.

나날이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IPO시장에서 중형 증권사가 4%대의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작부터 끝까지 상장을 위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해서다. 키움증권이 타깃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대부분 상장 전 내

부통제기간이 필요하다. 경영권이나 지배구조, 회계 부문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 모든 것을 주관사가 관리해 발행사의 의존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키움증권이 7월 상장주관한 바이오리더스가 대표적이다. 180억원을 공모했는데 수수료 10억원을 키움증권에 지급했다. 키움증권에 올해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지급한 회사이기도 하다. 수수료율로 따지면 5.67%로, 해외 기업 상장 수수료율과 맞먹는다. 바이오리더스처럼 기술특례제도로 상장하는 기업은 기술성심사부터 상장까지 주관사의 컨설팅 아래 진행된다. 한 기업에 투입한 비용과 시간만큼 주관사는 높은 가격의 수수료를 받도록 이끌어낼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중소기업 상장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어 신뢰를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위주의 영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키움증권에 이어 ECM부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수료율을 기록한 곳은 유진투자증권이다. 유진투자증권의 수수료율은 3.1%를 기록했다. 유진투자증권은 IPO와 유상증자, 추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부문에서 고르게 활약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올해 IPO시장에선 3건에 참여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올해 IPO에서 가장 높은 수수료를 받은 회사도 유진투자증권이라는 점에서 눈여겨볼만 하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국기업 오가닉티코스메틱은 유진투자증권에 무려 7%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572억원을 공모하며 수수료로 40억원을 지급한 것이다. 주관사간 경쟁이 심화돼 해외기업 상장 수수료도 5%대를 받는 것도 어려운데 유진투자증권은 어떻게 이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았을까.

오가닉티코스메틱이 처음부터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 앞서 NH투자증권과 주관 계약을 맺었던 회사는 의견차이 때문에 유진투자증권으로 주관사를 교체했다. 이후 유진투자증권의 주관 서비스에 만족한 회사는 상장 과정에서 인센티브 3억원을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오가닉티코스메틱 측이 주관 서비스에 높은 만족감을 표시해 후에 계약서상에도 없었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질'로 승부했다는 의미다.

ELB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영업을 한 곳 역시 유진투자증권이다. 페이퍼코리아와 버추얼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트레이스의 전환사채(CB) 발행을 주관하고, 두산건설 BW 발행 당시 인수단으로 참여했다. 올해 누적 인수금액은 650억원에 그쳤지만 수수료율은 5%를 지급받았다.

공모시장에서 소화가 안된 물량을 인수하면서 받은 추가 수수료 덕분이다. 버추얼텍과 트레이스가 공모에서 흥행에 실패하면서 발행규모의 절반 이상을 유진투자증권이 인수해야 했다. 대신 최종 인수금액에 대해 10% 내외의 추가 인수수수료를 받아 타 증권사보다 수수료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냈다.

유상증권 부문의 경우 인수 10건, 모집주선 6건에 참여했지만 실적은 2000억원에 그쳐 7위에 머물렀다. 중소형사 유상증자가 대부분이라 인수 금액이 크지 않았다. 수수료율도 업계 평균인 2%대를 받았다.

그동안 ECM 리그테이블에서 찾기 힘들었던 유안타증권의 이름이 수수료율 부문 상위권에 올랐다. 유안타 증권은 올해 4건의 IPO와 3건의 유상증자, 3건의 ELB 발행에 참여했다. 대만 유안타금융그룹에 인수됐지만 '동양증권 사태'로 경쟁력을 잃어 최근까지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를 기점으로 유안타증권은 정상화 단계에 접어든 모습이다. 특히 ECM 시장에서는 두산건설과 한화건설의 ELB 발행과 코오롱생명과학, 한화투자증권의 유상증자 등 대기업 자금조달 딜에 참여하며 트랙 레코드를 쌓았다.

IPO에서는 중국기업 골든센츄리를 성공적으로 상장시켜 '중국 전문 증권사'로서의 입지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수익도 좋았다. 270억원짜리 공모에서 수수료 15억원을 받았다. 수수료율로 치면 5.3% 수준이다.

물론 갈 길은 멀다. 유안타증권은 올해 ECM 부문 인수 순위 20위에 그쳤다. 그러나 2014년까지만 해도 ECM 부문에서 한 두건의 딜도 어렵게 따냈던 유안타증권이 올해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한 해를 보냈다는 평가다.

● ECM부문 인수 수수료율

순위	증권사	수수료율
1	키움증권	4.0%
2	유진투자증권	3.1%
3	유안타증권	2.9%
4	신영증권	2.5%
5	한양증권	2.2%
6	신한금융투자	2.1%
7	이베스트투자증권	2.1%
8	대신증권	1.7%
9	동부증권	1.7%
10	한국투자증권	1.5%

*2016년 12월 12일 기준

수수료 덩핑시대 끝? ECM 수수료, 질과 양 모두 '성장'

이재영 기자 | leeje@chosun.com

올해 연간 ECM 수수료 총액 1902억원...2011년 이후 최고
 평균 수수료율도 1.5%...해외기업·이전시장·제값받기 노력 덕분
 삼성그룹, 거래 3건으로 '300억원' 수수료 지급

● ECM 증권사별 인수 수수료 현황 (단위 : 억원)

순위	증권사명	인수총액	인수수료 총액 (대표주관수수료 포함)	평균 수수료율
1	한국투자증권	22,918	335	1.46%
2	NH투자증권	24,065	295	1.23%
3	신한금융투자	9,987	213	2.14%
4	유진투자증권	3,947	123	3.13%
5	미래에셋대우	9,219	86	0.94%
6	KB투자증권	6,724	75	1.13%
7	대신증권	4,289	74	1.73%
8	하나금융투자	4,577	65	1.42%
9	키움증권	1,524	60	3.97%
10	동부증권	3,619	60	1.66%
11	삼성증권	4,405	59	1.34%

*2016년 12월 12일 기준

2016년 주식시장(ECM)엔 모처럼 돈이 들었다. 제 살 깎아먹기식 '수수료 덩핑'도 줄었다. 삼성 등 대기업 그룹 관련 대형 거래가 잇따라 나온데다, 주식인수업무에서 수익성을 높히려는 증권사들의 노력이 합쳐지며 총 수수료 규모와 평균 수수료율이 모두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베스트조선이 집계한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올 한해 ECM에서 거래 주관 및 주식 인수 업무(모집주선 제외)를 통해 증권사들이 벌어들인 총 수수료는 1902억여원이었다. 지난해(1257억여원) 대비 51% 늘어난 금액이며, 2011년 이후 최고치다.

수수료의 '질'도 나쁘지 않았다. 증권사들의 총 인수금액은 12조6971억여원으로, 평균 인수수수료율(대표주관수수료 포함)은 1.50%였다. 이 역시 2011년 이후 최고치다. 2014년 1.2%로 최저점을 찍었던 평균 수수료율은 지난해 1.49%를 거쳐 올해에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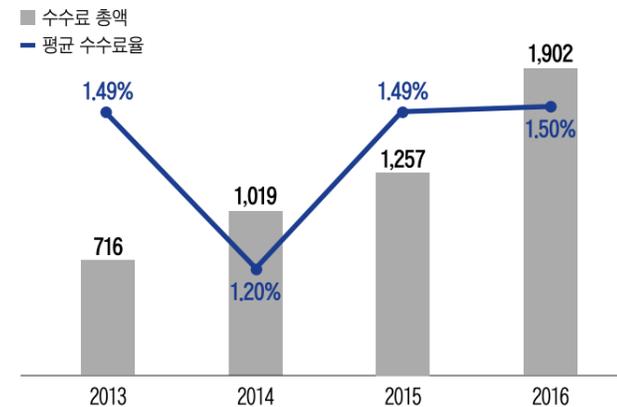
가장 많은 수수료를 번 증권사는 ECM 주관 1위 한국투자증권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31건의 거래를 통해 총 335억여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295억여원을 기록한 NH투자증권, 213억여원을 기록한 신한금융투자가 뒤를 이었다. 유진투자증권이 123억여원의 수수료 수입을 기록해 '깜짝 4위'로 부상했다.

총 수수료 규모 성장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건 삼성그룹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공개(IPO)와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시장에서 4조6557억여원을 모집한 삼성그룹은 주관·인수 수수료로 300억여원을 지급했다.

한화와 두산도 '큰 손'이었다. 한화그룹은 한화와 한화투자증권의 유상증자, 한화건설 교환사채(EB) 발행 과정에서 139억여원을 수수료로 지급했다. 두산그룹은 두산건설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두산팍켈 IPO를 통해 총 131억여원의 수수료를 내놨다.

공모 규모 5조원, 예상 수수료 500억원의 호텔롯데 상장이 무산됐음에도 꾸준히 중대형 거래가 이어지며 대규모 수수료를 내놓은 것이다. 여기에 오랜만에 해외기업 국내상장이 활기를 띠며 공모 규모 대비 많은 수수료를 지급한 것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 ECM 시장 수수료 추이 (단위 : 억원, %)



증권업계에서는 수수료의 전체 규모보다 평균 수수료율이 올라간 데 더 고무되고 있다. 전체 평균 수수료율은 1.5%지만, 5000억원 이상 빅딜(big deal) 제외시 평균 수수료율은 2.15%로 올라간다. '수수료율 1%'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최근 5년래 처음 있는 일이다.

증권사 투자금융(B) 관계자는 "대형 거래의 경우 투입하는 자원 대비 전체 수수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에서 최대한 수수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평균 수수료율이 올라간 배경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구조가 복잡하고 주관사 역량이 중요한 해외기업 국내 상장이 재개됐고 ▲코넥스→코스닥 이전시장 거래의 평균 수수료율이 비교적 높게 책정됐으며 ▲발행사와 신뢰를 바탕으로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제값을 받으려는 노력이 지속됐다는 것이다.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하고 올해 가장 많은 수수료를 지급한 기업은 모두 해외기업이었다. 로스웰인터내셔널 51억원, 화승엔터프라이즈(베트남 계열사 국내 상장) 49억원, 그레이트리치과기 48억원 등 대기업 못지 않은 수수료 액수였다. 해외기업 9곳이 국내에 상장하며 지급한 수수료 총액은 300억여원, 평균 수수료율은 5.1%에 달했다.

코스닥에서 코넥스로 이전상장하는 기업의 평균 수수료율도 높았다. 코넥스 상장 과정에서는 지정자문인들이 수익을 올리기 어려워 이전상장을 위한 공모에 집중하는 까닭이다. 올해 코스닥 이전시장에 성공한 6개 회사가 증권사에 지급한 총 수수료 규모는 34억여원이었다. 증권사 총 인수금액은 746억여원으로, 평균 수수료율이 4.5% 수준이었다.

증권사별로 보면 한국투자증권 평균 수수료율은 1.46%로 전체 평균과 비슷했다. 수수료율 1% 이하의 대형 거래를 통해 주로 실적을 쌓았지만, 국내 기업 해외계열사를 특수목적회사(SPC)로 묶어 상장하는 등 독특한 거래를 맡으며 평균 수수료율을 끌어올렸다.

한때 '수수료 후려치기의 주범'으로 타 증권사들의 시기를 받았던 NH투자증권은 1.23%로 평균보다 약간 낮은 평균 수수료율을 기록했다. 삼성 등 대형 거래에 실적 상당 부분을 의존한 미래에셋대우의 평균 수수료율이 0.94%로 대형사 중 가장 낮았다.

DCM 리그테이블 발표 기준

1. 대표주관·공동주관을 별도로 집계한다. 인수실적은 주관실적과 구분해 별도로 집계한다.
2. 대표·공동주관사에 포함돼 있지 않는 단순 인수단의 인수금액은 대표주관사 실적에 합산한다. 공동주관사는 자신의 인수금액만 주관실적으로 인정한다.
 - 대표주관사가 복수인 경우, [A대표주관사 기본 인수금액 + (단순인수단 인수합산금액 / (대표주관사 수의 총합))]으로 계산한다. 대표주관사가 복수일 경우라도, 각 사별 인수물량에 따라 주관실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3. 주선실적과 인수실적은 원화를 기준으로 한다. 단, 외화표시 주식연계증권의 경우 증권신고서상 달러/원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회사채(SB) 집계 기준

1. 거래금액
 -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최종 투자설명서를 바탕으로 집계한다.
2. 집계대상
 - 국내 상장·비상장 비금융 기업이 발행한 일반 회사채를 대상으로 한다.
 -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한 무보증사채 및 조건부자본증권 등도 SB에 포함한다.
 - 납입기일 기준으로 분기별 거래를 집계한다.
3. 거래지역
 - 국내
4. 거래자
 - 국내 비금융 법인
 -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한 무보증사채 및 조건부자본증권

유동화증권(ABS) 집계 기준

1. 거래금액
 -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최종 투자설명서를 바탕으로 집계한다.
2. 집계대상
 - 국내 자산유동화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특수목적법인 포함)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대상으로 한다.
 -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포함하지 않는다.
 - 납입기일 기준으로 분기별 거래를 집계한다.
3. 거래지역
 - 국내
4. 거래자
 - 국내 기업

- KB證의 6년 아성, NH·한국證이 깰 수 있을까
- SK가 먹여 살린 회사채 시장...외형 축소는 불가피
- 은행채 시장, 발행 1위 신한銀·주관 1위 하나금투
- 5년 만에 존재감 바닥 된 채권시장



KB證의 6년 아성, NH·한국證이 꺾 수 있을까

이도현·경지현 기자 | dohyun.lee@chosun.com

KB證, 회사채 주관 실적 6년째 1위...규모는 하향 추세

NH證 일반회사채 주관 1위 자리 지켜...주관 시장 규모는 점차 축소

상위 3사 주관 비중 50% 육박

● 전체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	건수	점유율(%)
1	KB투자증권	7,585,896	138	18.77
2	NH투자증권	6,436,194	119	15.93
3	한국투자증권	5,509,673	110	13.63
4	미래에셋대우	3,768,463	82	9.33
5	신한금융투자	2,597,500	54	6.43
6	SK증권	2,394,666	22	5.93
7	한국산업은행	1,478,709	22	3.66
8	삼성증권	1,298,833	25	3.21
9	부국증권	1,190,333	9	2.95
10	에이치엠씨투자증권	1,111,333	17	2.75
11	하나금융투자	937,873	13	2.32
12	하이투자증권	818,762	27	2.03
13	키움증권	655,657	10	1.62
14	유안타증권	631,515	14	1.56
15	IBK투자증권	574,363	15	1.42
16	메리츠증권	533,500	2	1.32
17	신영증권	478,000	16	1.18
18	한화투자증권	424,154	14	1.05
19	엘아이지투자증권	407,999	17	1.01
20	미래에셋증권	385,000	5	0.95

● 전체 인수

(단위: KR/백만원)

순위	주관사	금액	건수	점유율(%)
1	KB투자증권	5,353,984	306	13.25
2	NH투자증권	4,958,194	197	12.27
3	한국투자증권	4,404,262	277	10.90
4	SK증권	3,978,500	271	9.85
5	미래에셋대우	3,048,718	182	7.54
6	신한금융투자	2,383,000	179	5.90
7	한국산업은행	1,339,042	106	3.31
8	하이투자증권	1,336,262	107	3.31
9	부국증권	1,334,000	126	3.30
10	에이치엠씨투자증권	1,288,500	85	3.19
11	삼성증권	1,255,000	49	3.11
12	하나금융투자	1,162,373	102	2.88
13	한화투자증권	1,088,243	79	2.69
14	메리츠증권	736,500	55	1.82
15	신영증권	730,812	62	1.81
16	유안타증권	714,182	61	1.77
17	IBK투자증권	692,863	58	1.71
18	엘아이지투자증권	678,500	48	1.68
19	키움증권	605,324	32	1.50
20	미래에셋증권	565,000	36	1.40

*2016년 12월 12일 기준

● 일반 회사채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	건수	점유율(%)
1	NH투자증권	5,474,666	105	23.55
2	KB투자증권	5,394,994	103	23.2
3	한국투자증권	3,547,057	83	15.26
4	미래에셋대우	2,245,057	61	9.66
5	신한금융투자	1,153,666	33	4.96
6	삼성증권	1,138,833	23	4.90
7	신영증권	447,000	15	1.92
8	SK증권	427,500	8	1.84
9	엘아이지투자증권	407,999	17	1.75
10	하이투자증권	390,499	15	1.68
11	미래에셋증권	385,000	5	1.66
12	키움증권	374,000	8	1.61
13	IBK투자증권	347,000	6	1.49
14	유안타증권	247,000	5	1.06
15	한국산업은행	239,000	8	1.03
16	한화투자증권	236,223	8	1.02
17	현대증권	201,500	7	0.87
18	이베스트투자증권	192,499	9	0.83
19	에이치엠씨투자증권	130,000	3	0.56
20	동부증권	116,500	3	0.50

● 일반 회사채 인수

(단위: KR/백만원)

순위	주관사	금액	건수	점유율(%)
1	NH투자증권	3,929,000	140	16.90
2	KB투자증권	3,487,250	134	15.00
3	한국투자증권	2,763,812	132	11.89
4	SK증권	1,868,000	70	8.03
5	미래에셋대우	1,760,312	83	7.57
6	신한금융투자	1,156,500	71	4.97
7	삼성증권	1,095,000	44	4.71
8	한화투자증권	845,312	59	3.64
9	에이치엠씨투자증권	645,000	36	2.77
10	엘아이지투자증권	598,500	43	2.57
11	미래에셋증권	545,000	34	2.34
12	하이투자증권	541,000	38	2.33
13	신영증권	469,812	36	2.02
14	하나금융투자	435,000	38	1.87
15	IBK투자증권	416,500	28	1.79
16	유안타증권	388,000	33	1.67
17	이베스트투자증권	363,000	25	1.56
18	키움증권	352,000	18	1.51
19	동부증권	327,500	20	1.41
20	대신증권	250,500	23	1.08

*2016년 12월 12일 기준

● ABS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	건수	점유율(%)
1	KB투자증권	2,124,234	32	12.69
2	한국투자증권	1,962,616	27	11.72
3	SK증권	1,930,500	12	11.53
4	미래에셋대우	1,523,406	21	9.10
5	신한금융투자	1,407,166	19	8.41
6	한국산업은행	1,239,709	14	7.41
7	부국증권	1,190,333	9	7.11
8	NH투자증권	961,527	14	5.74
9	하나금융투자	937,873	13	5.60
10	에이치엠씨투자증권	701,333	10	4.19
11	메리츠증권	533,500	2	3.19
12	하이투자증권	428,262	12	2.56
13	유안타증권	384,515	9	2.30
14	키움증권	281,657	2	1.68
15	IBK투자증권	227,363	9	1.36
16	유진투자증권	210,101	8	1.26
17	한화투자증권	187,930	6	1.12
18	삼성증권	160,000	2	0.96
19	동부증권	138,333	1	0.83
20	교보증권	70,000	1	0.42

● ABS 인수

(단위: KR/백만원)

순위	주관사	금액	건수	점유율(%)
1	SK증권	1,990,500	196	11.89
2	KB투자증권	1,806,734	169	10.79
3	한국투자증권	1,625,449	143	9.71
4	부국증권	1,334,000	126	7.97
5	미래에셋대우	1,288,406	99	7.70
6	신한금융투자	1,196,500	107	7.15
7	한국산업은행	1,150,042	97	6.87
8	NH투자증권	1,029,194	57	6.15
9	하이투자증권	765,262	67	4.57
10	하나금융투자	717,373	63	4.29
11	메리츠증권	676,500	51	4.04
12	에이치엠씨투자증권	513,500	46	3.07
13	유안타증권	326,182	28	1.95
14	IBK투자증권	276,363	30	1.65
15	신영증권	261,000	26	1.56
16	키움증권	253,324	14	1.51
17	한화투자증권	242,930	20	1.45
18	유진투자증권	210,101	21	1.26
19	코리야에셋투자증권	188,838	15	1.13
20	BNK투자증권	186,000	17	1.11

*2016년 12월 12일 기준

회사채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예전만 못하다고 해도 KB투자증권의 벽은 여전히 단단했다. KB투자증권은 이 시장에서 6년째 1등 주관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제 ‘누가 1등 주관사인가’ 보다는 ‘누가 KB투자증권의 독주를 제지할 수 있을 것인가’ 가 더 큰 관심사가 됐다. 대항마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다. NH투자증권은 일반 회사채 주관 1위를, 한국투자증권은 전 분야에서 고른 성적을 거두며 KB투자증권과의 격차를 좁혀 나가고 있다.

채권자본시장(DCM)에서 2016년에 발행된 공모 회사채는 12월12일 기준으로 총 80조4810억원이다. 이 중에서 실질적인 주선 실적으로 볼 수 있는 일괄신고 제외 물량은 절반 수준인 40조4110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 53조7225억원과 비교하면 10조원 이상 줄어들었다. 발행 여건 악화 속에서 차환 물량의 순상환 기조가 이어지면서 회사채 시장의 활용도가 예전만 못해졌다.

KB투자증권은 올해 총 138건, 7조5859억원어치의 회사채를 주관하며 1위에 올랐다. 점유율은 20%에 육박한다. 일반 회사채 주관에선 5조3950억원으로 NH투자증권에 근소한 차로 2위에, 자산유동화증권(ABS) 주관에선 2조1242억원으로 1위에 올랐다. SK(주)의 회사채 총 8000억원어치를 단독으로 대표주관한 것이 큰 보탬이 됐다. (SK(주) 다음으로는 CJ제일제당, 메리츠오토제차, 색동이제십육차, 롯데케미칼 등 대표주관 금액은 3000억원 이하다.) 그룹으로 놓고 보면 SK그룹과 롯데그룹이 KB투자증권을 자주 찾았다.

회사채 주관시장에서 KB투자증권의 독주는 6년째 이어지고 있다. 2015년부터 일반 회사채 주관 1위 자리는 NH투자증권에 내줬지만, 2013년부터 끌어올린 ABS 주관 실적으로 이를 상쇄시킬 수 있었다.

DCM 1위는 KB투자증권이 따 놓은 당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대항마들도 만만치 않다. 올 들어 KB투자증권의 ABS 주관 실적이 감소하며 2~3위들과의 격차는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총 6조4362억원어치의 회사채를 주관하며 2위에 올랐다. KB투자증권과의 격차는 1조원이 넘는다. 하지만 ABS를 제외한 일반 회사채만 놓고 보면 지난해부터 NH투자증권이 KB투자증권에 앞서 있다. 과거 우리투자증권 시절 DCM 강자의 면모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 SK그룹, CJ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등 다양한 그룹들이 NH투자증권을 찾고 있다.

5조5096억원어치의 회사채를 주관한 한국투자증권은 KB투자증권, NH투자증권과 다소 격차가 있다. 하지만 일반 회사채 주관 3위, ABS 주관 2위 등 각 분야에서 고른 성적을 거두고 있다. 지금 수준의 ABS 실적을 유지하면서 일반 회사채 주선에 좀 더 신경을 쓰면 확실한 3강으로서 자리를 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년과 비교하면 10위권 내에서 순위의 큰 변동은 없었다. 상위 3개 증권사의 영향력은 더 커졌다. KB·NH·한국 3사의 주관 금액은 19조5317억원으로 전체 주관 금액의 50%에 육박한다. DCM의 규모가 더 커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 3사의 영향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증권사 DCM 관계자는 “수요예측이 실시된 이후 발행 기업들이 수요예측 미달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중소형 증권사 대신 상위 톱 랭크 증권사들로 물리는 현상이 더 심해졌다” 고 전했다.

앞으로 채권 발행을 검토 중인 기업들 역시 주관 실적 상위 증권사들을 찾을 가능성은 더 커졌다는 얘기다. 내년에 통합법인으로 출범하는 미래에셋대우가 옛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는 내년 DCM 주요 관전 포인트다.

SK가 먹여 살린 회사채 시장...외형 축소는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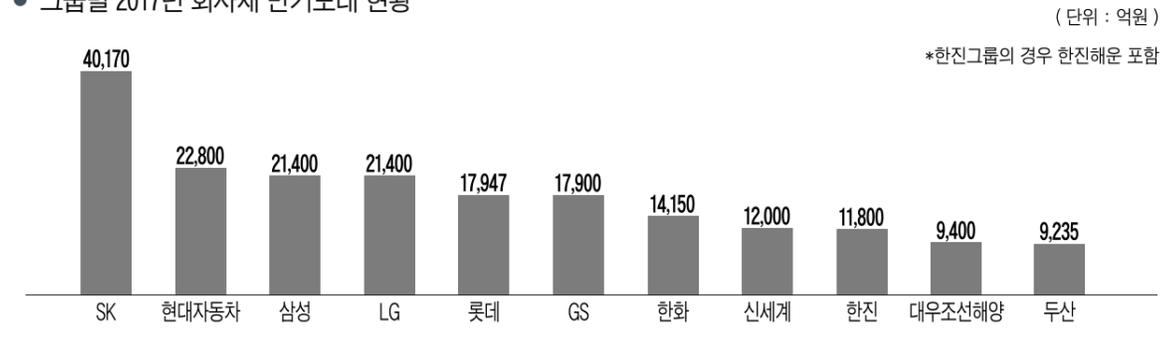
이도현·경기현 기자 | dohyun.lee@chosun.com

SK그룹, 올해 발행물량만 4조 육박...주관 상위 3사 실적에도 한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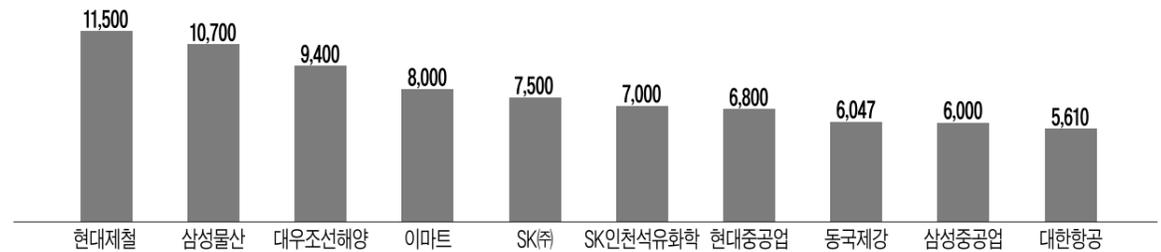
중후장대 발행 감소...순상환 기초

내년 차환발행 분위기 좋지 않아...시장 더 축소될 가능성

● 그룹별 2017년 회사채 만기도래 현황



● 기업별 2017년 회사채 만기도래 현황



*출처 : KIS채권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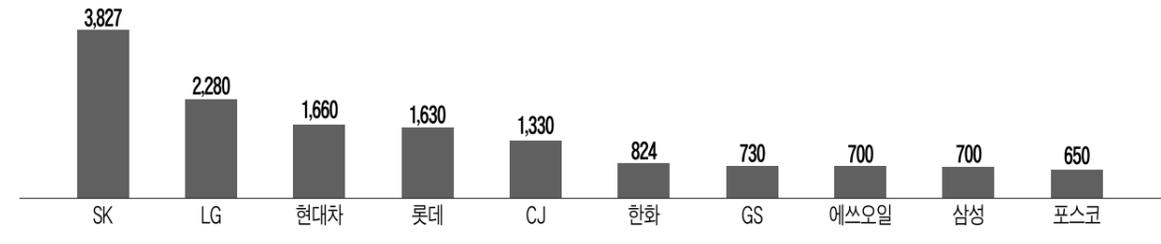
저성장 고착화와 취약업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우량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마저 줄어드는 가운데에서 SK그룹이 시장에 온기를 전해주고 있다. SK그룹은 올해 최대 이슈어 역할을 톡톡히 해줬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탄핵 정국으로 기업들의 활동은 사실상 멈췄고, 투자자들의 기조는 갈수록 보수화하고 있다. 이에 신용등급 AA 이상의 현금흐름이 꾸준한 기업들에 대한 편중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다. 수급 불균형 현상이 더 심화하면서 비우량 그룹들의 내년 차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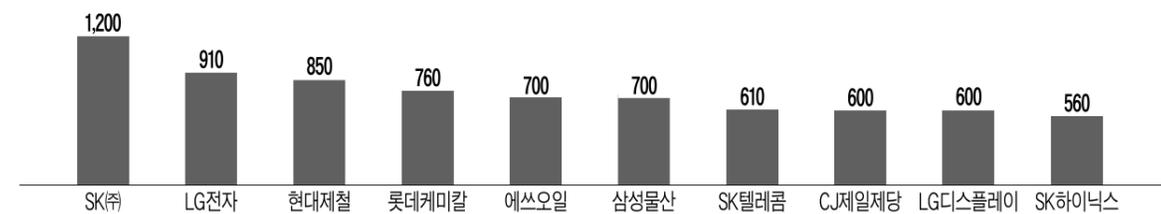
SK그룹은 올해 총 3조8270억원을 공모 회사채 시장에서 조달했다. 지주회사인 SK㈜는 1조2000억원어치의 회사채를 발행, 국내 기업 중 최대 이슈어로 이름을 올렸다. 주력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이 단 한 건의 회사채 발행도 진행하지 않았지만 SK텔레콤(6100억원), SK하이닉스(5600억원), SK E&S(3400억원), SK네트웍스(3000억원) 등이 이를 채워줬다.

● 그룹별 2016년 회사채 발행 현황

(단위 : 십억원)



● 기업별 2016년 회사채 발행 현황



SK그룹의 회사채 발행은 증권사 주선 실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KB투자증권(9875억원), NH투자증권(1조425억원), 한국투자증권(1조400억원) 등 주관 상위 3사의 SK그룹 대표주관 금액은 1조원을 기록했다.

SK그룹은 내년에도 4조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 역시 국내 재계 그룹 중 가장 많은 규모다. SK그룹의 회사채 발행 선호 성향, 우량한 신용도 등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SK그룹의 시장 영향력은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SK 다음으로 많은 LG그룹의 발행 규모는 2조2800억원으로, 계열사 중에선 LG전자 9100억원, LG디스플레이 6000억원 등 IT 계열사들의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LG그룹 역시 주력 계열사인 LG화학의 발행은 전무했다. 그 외에 발행 규모 1조원이 넘는 그룹은 현대자동차그룹, 롯데그룹, CJ그룹에 그쳤다. 순상환 기초가 이어지고 있어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에 대한 차환 발행 수요도 예년만 못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온다.

회사채 시장의 외형 축소는 이미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제반 여건이 좋지 않다. 금융 시장이 붕괴됐던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업황 부진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전반적인 자금 조달 문턱이 몇 계단 높아진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사와 해운사들은 회사채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고, 건설사들도 선별적으로 발행이 이뤄지는 정도다. 회사채 시장 단골이었던 중후장대(重厚長大) 기업들의 발길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업황이 개선된 정유·화학사들마저 현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기조로 바뀌어 점점 멀어지고 있다.

거기에 더해 미국의 금리 인상, 사드발(發) 중국의 한한령, 국내의 탄핵 정국 등 대내외 악재들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입지가 더 좁아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 과정에서 비우량기업들의 차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조선·철강·해운·항공 등 업황 불황 기업들은 신용도 저하 가능성이 요주의다. 일찌감치 두산·한진·동국제강·금호아시아나 등은 내년이 신용도 상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은행채 시장, 발행 1위 신한銀·주관 1위 하나금융투

김진욱 기자 | marketwarrior@chosun.com

신한銀, 올해 은행채 발행 1위 차지
 지난해 주관 1위였던 교보證, 2위로
 코코본드 등 자본확충 화두

● 은행채 발행

순위	발행사	금액	건수	점유율(%)
1	신한은행	6,722,822	57	29.43
2	KEB하나은행	5,569,005	49	24.38
3	우리은행	5,421,533	25	23.73
4	KB국민은행	3,163,547	22	13.85
5	DGB대구은행	500,000	7	2.19
6	한국씨티은행	468,925	7	2.05
7	전북은행	347,873	4	1.52
8	BNK경남은행	300,000	4	1.31
10	SC제일은행	100,000	3	0.44
10	BNK부산은행	100,000	2	0.44

● 은행채 주관

(단위: KR/백만원)

순위	주관사	금액	건수	점유율(%)
1	하나금융투자	3,808,170	26	16.67
2	교보증권	3,679,162	26	16.11
3	KB투자증권	2,307,375	19	10.10
4	한양증권	1,893,030	18	8.29
5	하이투자증권	1,765,032	15	7.73
6	메리츠증권	1,520,000	14	6.65
7	이베스트투자증권	1,309,378	11	5.73
8	BNK투자증권	1,240,000	11	5.43
9	삼성증권	1,168,610	10	5.12
10	토러스투자증권	1,016,595	9	4.45

*2016년 12월 12일 기준

신한은행이 올해 은행채 발행 시장에서도 선두를 달렸다. 주관 시장에서는 하나금융투자가 접전 끝에 교보증권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인베스트조선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공모 은행채는 약 22조8437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전년(26조2800억원) 대비 13.1%가량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급증세가 올해 다소 완화되면서 자금 조달 필요성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은행이 6조7228억원을 발행해 1위에 올랐다. 전체의 29.4%에 해당한다. 8조8100억원(33.5%)을 발행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은행채 시장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조달했다. 5조5690억원(24.4%)을 발행한 KEB하나은행과 5조4215억원(23.7%)을 발행한 우리은행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에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CoCo Bond)도 1조200억원 규모로 발행됐다. 코코본드 역시 신한은행이 5000억원을 발행해 1위를 차지했다. KEB하나은행(2000억원), BNK경남은행·DGB대구은행(각각 1000억원), 광주은행(700억원), 제주은행(500억원)도 코코본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은행채 주관 순위에서는 하나금융투자가 1위를 기록했다. 주관액은 3조8082억원, 점유율은 16.7%다. 2위는 3조6792억원(16.1%)을 주관한 교보증권. 지난해 및 올해 3분기까지 선두였지만, 연 결산 1위 자리를 하나금투에 내줬다. KB투자증권과 한양증권은 각각 2조3074억원(10.1%), 1조8930억원(8.3%)을 주관해 3, 4위에 올랐다.

은행채 발행 감소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자금 담당자는 "가계대출은 2015년을 정점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기업대출 또한 증가 소요가 특별히 많지 않다"면서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발행분을 제외하면 은행채 발행액이 늘어날 유인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 재무 담당자는 "국내·외 정세 등으로 내년에는 경제 변동성이 클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자산을 공격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두고 보수적인 운용 정책을 펼치는 은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5년 만에 존재감 바닥 된 채권시장

이도현 기자 | dohyun.lee@chosun.com

일반 회사채 발행물량 절반 이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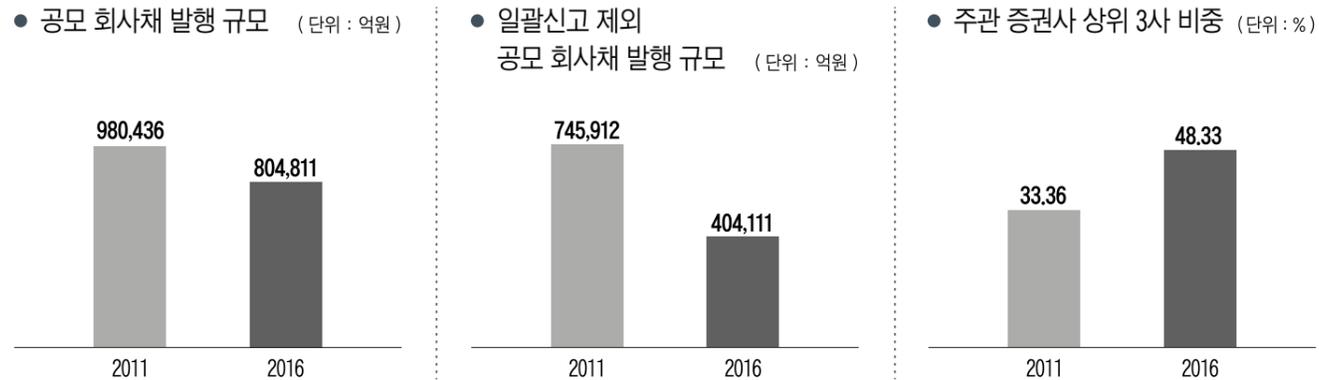
기업 자금조달 창구 문턱 높아져

향후 시장 추가 축소 가능성

한 때 회사채 시장은 기업들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라고 불렸다. 기업들은 유동성을 확충해야 했고, 시장에 자금은 넘쳐났다. 5년 만에 상황은 뒤바뀌었다. 기업들의 자금 소요는 줄었고, 조달 문턱 역시 높아졌다. 한 때 증권사들은 주관사가 되기 위해 경쟁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이었지만, 이제는 몇몇 증권사에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 이런 추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이다. 채권자본시장(DCM)의 존재감은 더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베스트조선은 2011년부터 자본시장 리그테이블을 발표하고 있다. 2011년과 2016년의 DCM을 비교해보니 그 변화는 극적이었다.

공모사채 발행물량은 2011년 98조원에서 2016년 80조4800억원으로 18조원 이상 줄었다. 일괄신고 제외 물량은 같은 기간 72조5900억원에서 40조4100억원으로 감소 폭이 더 컸다. 일괄신고 발행은 일정 기간 동안 규모를 정해서 발행되기 때문에 증권사 주관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즉 카드·캐피탈채권과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제외한 일반 회사채의 발행 감소는 더 극적이다. 2011년 56조9200억원어치가 발행된 일반 회사채가 2016년에는 23조2500억원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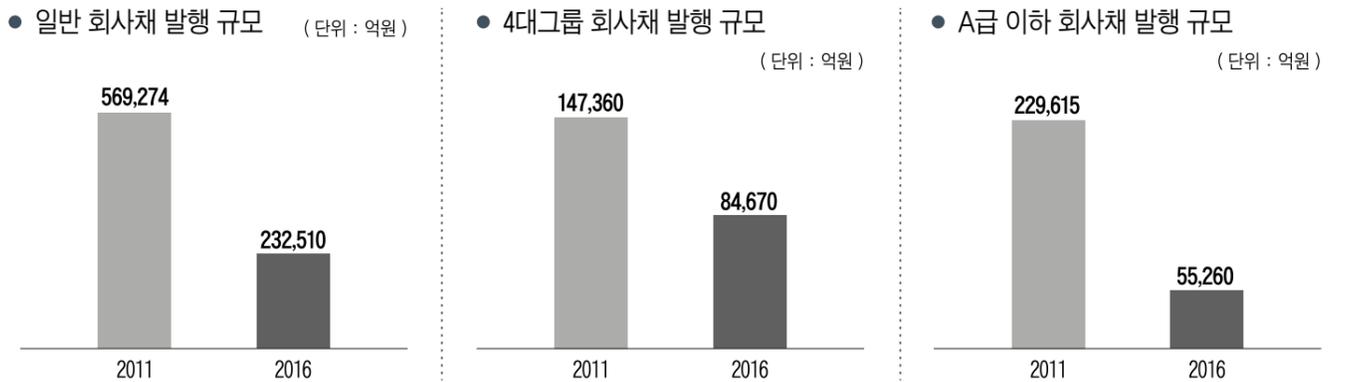
한 해 동안 회사채 1조원 이상 발행한 기업, 이른바 '1조 클럽'은 2011년에 신한금융지주, KT, 포스코, 대한항공, 우리금융지주, GS칼텍스, LG디스플레이, LG전자까지 7곳에 달했다. 하지만 올 들어선 SK(₩) 단 한 곳뿐이다. 5000억원 이상 발행 기업들은 2011년 37개사에서 2016년 13개사로 줄었다.

증권사 DCM 관계자는 "부채 대신 자본 확충이 중요해진 금융투자자들이 이탈했고, 한 축을 담당했던 통신, 철강, 석유화학 등 우량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의 채권시장 활용도도 눈에 띄게 줄었다. 4대 그룹의 회사채 발행은 14조7630억원에서 8조4670억원으로 5년 새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특히 삼성의 발행 감소가 크게 이뤄졌다. 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매각 및 합병으로 발행 계열사 수가 줄었고, 조선과 건설의 업황 부진도 한몫했다.

우량 기업들은 유동성 확충 기조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차입금 순상환 기조로 돌아갔다. 반면 신용도가 떨어지는 비우량 기업들은 자금이 필요해도 시장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회사채 시장에선 AA급 미만이 사실상 비우량 채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23조원에 육박했던 A급 이하 회사채 발행 규모가 2016년에는 5조5200억원으로 급감했다. 사실상 비우량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이 끝난 셈이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개최한 신용평가 컨퍼런스에서 내년에도 기업들의 신용등급 하향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산, 한진, 현대중공업, 동국제강, 금호아시아나, 이랜드는 내년이 그룹 신용도를 좌우할 중요한 한 해라고 분석했다. 5년간 이들 6개 그룹의 채권 발행은 5조7000억원에서 6250억원으로 급감, 이미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다.



기업들의 채권 발행 감소는 자연스럽게 투자은행(IB) 업계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언제든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을 때는 증권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주관 경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파이가 작아지면서 대형 증권사들로 쏠림 현상은 심해졌다.

2011년에는 5조원 이상 회사채 발행을 주관한 IB 하우스는 KB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한국산업은행, 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이렇게 8개사에 달했다. 2016년에는 KB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단 세 곳뿐이다. 상위 3사에 대한 비중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같은 기간 주관 실적 상위 3사의 비중은 33.36%에서 48.33%로 집중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DCM의 존재감이 줄어드는 지금의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투자자들의 보수화 현상,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국내 제조업의 위기 등 수급 상 긍정적인 요인이 하나도 없다. 신용도가 AA급 이상으로 우량하고, 현금흐름이 안정적인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발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발행을 준비하는 기업들 역시 과거처럼 "친한 사이니까 말린다"라는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수요예측에서 충분히 소화할 역량을 갖춘 톱랭크(Top Rank) 주관사들에 일감을 몰아줄 공산도 커졌다. 이러한 이유로 IB업계에선 중소형 증권사들이 회사채 대신 ABS 주관 시장으로 쏠릴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온다.

M&A 리그테이블 발표 기준

1. 발표기준은 알려진 시점(양해각서 체결, 주식매매계약 체결 등)이 당해 집계 연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함하며, 완료는 잔금납입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재무전략자문, 회계자문, 법률자문으로 부문을 나누어 부문별 주관 실적을 발표한다.
3. 공동 자문의 경우 각각의 자문사에 자문금액 전체를 반영하되, 특별 약정 등에 의해 기관별 역할이 나뉘져 있거나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엔 해당 금액만 발표한다.

M&A 집계 기준

1. 거래금액

- 최소 10억원 이상

2. 집계대상

- 각 자문사별 집계 내용을 토대로 공시, 자문사 및 자문대상 회사 등을 통해 자문 내역과 금액을 확인한다.
- 매각자나 인수자, 또는 매각대상이 한국 국적이며, 복수의 거래주체간 기업의 경영권 이전(주식 매매와 영업·자산양수도 포함) 거래를 집계한다.
- 경영권이 이전되지 않았지만 주요 지분 5%이상의 거래도 집계한다.
- 여러 거래로 이뤄졌지만 실질은 하나인 경우 기본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판단한다.
- 단, 각각의 세부 거래 자문이 다를 경우 전체 자문에 참여한 자문사는 전체 금액을 반영하고, 각 세부 거래에 참여한 경우는 그 금액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 > 예) 포스코특수강 매각의 경우 포스코와 재무적투자자의 자문 실적을 각각 분리해 인식.
-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한 무보증사채 및 조건부자본증권 등도 SB에 포함한다.
- 납입기일 기준으로 분기별 거래를 집계한다.

3. 집계 제외 대상

- 시간외대량매매(블록세일)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절차 대행 등 핵심 영역이 아닌 자문
- 영업양수도 거래도 반영하되 단순 부동산 및 자산 매각은 제외 (Real asset에 반영)

3. 거래지역

- 국내

4. 거래자

- 국내 법인간 거래
- 국내 법인의 해외 법인 인수
- 해외 법인의 국내 법인 인수
- 외국 법인간 거래자문은 집계하지 않는다.

5. 합병 및 경영권 미수반 거래는 별도집계 또는 개별 판단한다

- 모건스탠리·크레디트스위스, M&A 재무자문 1위
- 한국 M&A 시장에서 설 자리 잃어가는 외국계 IB
- 삼일PwC, 올해 회계자문 1위 수성
- 기델 곳은 '삼성'뿐?...삼성 따라 해외 나간 회계법인
- 김앤장, '거래 건수'로 지켜낸 M&A 법률자문 '1위'
- 압도적 '숫자'에도 '위기설' 사그라지지 않는 김앤장
- NH證, 2년 연속 M&A 인수금융 주선 1위
- 인수금융 주선 시장...상반기엔 리파이낸싱 하반기엔 소형거래만
- 국내기업 '해외로'...역동성 떨어진 국내 M&A 시장



모건스탠리·크레디트스위스, M&A 재무자문 1위

이서윤·한지웅 기자 | syoon@chosun.com

모건스탠리-CS, 대형 거래서 두각
국내사, EY한영·삼일PwC 등 선전
로엔엔터·하만 등 자문사 없는 거래多

2016년 기업 인수자문 시장에서 모건스탠리, 크레디트스위스(CS)가 발표·완료 부문 각각 1위에 올랐다.

올해 인수·합병(M&A) 시장에는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의 로엔엔터테 인먼트 매각과 삼성전자의 하만(Harman) 인수 등 굵직한 거래가 등장했다. 그러나 재무자문사를 선임하지 않은 거래들이라 정작 재무자문사들 순위표를 흔들지 못했다.

인베스트조선이 집계한 2016년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발표 기준 3조9000억원의 자문 실적을 쌓았다. 올 4월 터키 마르스엔터테인먼트 매각자문(8000억원)을 시작으로, 7000억원 규모의 두산DST(現 한화디펜스) 매각에서 인수자인 한화테크원을 대리했다.

이어 지난 9월 1조7000억원 규모 HP의 삼성전자 프린팅사업부(에스프린팅 솔루션) 인수,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인수(1조2500억원) 등에 참여했다.

완료부문에선 총 6건의 거래를 성사시킨 CS가 선두를 차지했다. 누적 자문금액은 총 5조7000억원에 달한다. CS는 지난해 말 시작된 대우증권 매각(2조4000억원)을 삼일PwC와 공동으로 자문했다. 두산그룹 거래에선 두산DST와 두산인프라코어의 공장기계사업부 매각도 주도했다. OCI의 OCI머티리얼즈(現 SK머티리얼즈) 매각 자문사로 활약했다.

BoA메릴린치는 5위에 안착했다. MBK파트너스 인수자문을 맡으며 두산공작기계 사업부 인수를 매듭지었다. 현재는 로젠택배 매각에서 인수자인 CVC캐피탈파트너스의 자문사다.

7위를 기록한 골드만삭스는 HK저축은행, 마르스엔터의 매각을 완료했고, 현재는 PCA생명 매각 자문을 했다. JP모건은 베어링PEA의 로젠택배 매각 및 한라시멘트 인수 완료 외에 눈에 띄는 자문 실적이 없어 8위에 머물렀다.

국내사들 중에선 EY한영과 삼일PwC가 선전했다. EY한영은 삼성SDI의 케미칼사업부 매각을 비롯해 삼성정밀화학 매각을 올해 마무리 지었다. 현대증권 거래에서도 매각 측 재무·회계실사 업무를 맡았다. 삼일PwC는 올 4월 쌍용양회 매각과 8월 이스트브릿지파트너스의 해피콜 인수 자문을 끝냈다.

넌바이아웃(Non-Buyout) 분야에선 발표·완료 기준 삼성증권과 모건스탠리가 각각 1위였다. 삼성증권은 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과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지분 매각 거래가 실적에 주된 영향을 줬다. 모건스탠리는 MBK파트너스와 TPG캐피탈과 함께 인수한 홍콩 워프 T&T 거래 자문 실적 등이 반영됐다.

Buyout

● 재무전략 자문 (발표)

순위	자문	금액	건수	점유율(%)
1	모건스탠리	3,914,867	4	18.82
2	크레디트스위스	2,761,935	4	13.28
3	EY한영	1,606,226	8	7.72
4	삼일PwC	1,481,141	30	7.12
5	메릴린치	1,460,818	2	7.02
6	KB투자증권	1,250,009	1	6.01
7	골드만삭스	1,161,324	3	5.58
8	JP모건	882,200	2	4.24
9	씨티	797,008	1	3.83
10	다이와	749,285	4	3.60

● 재무전략 자문 (완료)

(단위: KR/백만원)

순위	자문	금액	건수	점유율(%)
1	크레디트스위스	5,715,250	6	18.04
2	EY한영	4,479,131	10	14.14
3	삼일PwC	4,334,336	22	13.68
4	모건스탠리	3,166,517	4	9.99
5	씨티	1,493,226	3	4.71
6	한국산업은행	1,468,200	3	4.63
7	KB투자증권	1,380,009	2	4.36
8	메릴린치	1,130,818	1	3.57
9	골드만삭스	991,324	2	3.13
10	신한금융투자	916,700	2	2.89

*2016년 12월 12일 기준

Non - Buyout

● 재무전략 자문 (발표)

순위	자문	금액	건수	점유율(%)
1	삼성증권	4,029,021	4	23.96
2	삼정KPMG	2,761,494	8	16.42
3	JP모건	2,360,000	1	14.03
4	미래에셋대우	2,360,000	1	14.03
5	골드만삭스	1,453,735	2	8.64
6	모건스탠리	1,396,500	1	8.30
7	UBS	1,396,500	1	8.30
8	삼일PwC	591,870	5	3.52
9	딜로이트안진	256,931	1	1.53
10	케이알앤파트너스	70,000	3	0.42

● 재무전략 자문 (완료)

(단위: KR/백만원)

순위	자문	금액	건수	점유율(%)
1	모건스탠리	1,546,499	2	20.61
2	삼성증권	1,540,457	1	20.53
3	골드만삭스	1,453,735	2	19.37
4	UBS	1,396,500	1	18.61
5	삼일PwC	1,005,636	5	13.4
6	삼정KPMG	401,494	7	5.35
7	케이알앤파트너스	50,000	2	0.67
8	한국산업은행	40,000	1	0.53
9	신한금융투자	29,086	1	0.39
10	BDA	22,832	1	0.3

*2016년 12월 12일 기준

한국 M&A 시장에서 설 자리 잃어가는 외국계 IB

이서윤·한지웅 기자 | syoon@chosun.com

재무자문 1위 모건스탠리·CS, 자문금액 3兆 그쳐
 IB 없는 대형 M&A 많고 거래 무산 사례만 부각
 기업공개·블록딜 부문 활약상과 대비

● 주요 거래 외국계 IB 선임 현황

구분	금액	자문사(매각-인수)
하만 (Harman)	9조3384억원	에버코어파트너스
현대증권	2조4838억원	모건스탠리(인수)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2조3846억원	크레디트스위스
우리은행	2조3600억원	JP모건
삼성SDI 케미칼사업부	2조3265억원	-
로엔엔터테인먼트	1조8743억원	-
Wharf T&T Limited	1조3965억원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UBS
쌍용양회	1조3385억원	-
현대캐피탈	1조3038억원	-
에스프린팅솔루션	1조1729억원	모건스탠리(인수)
두산 공작기계	1조1308억원	크레디트스위스-메릴린치
마르스 엔터테인먼트	7970억원	모건스탠리·골드만삭스-씨티
두산DST	6950억원	크레디트스위스-모건스탠리
동양매직	6100억원	크레디트스위스(인수)

*경영권 이전 없는 주요 지분거래 포함, 합병·부동산 제외
 *2016년 12월 12일 기준

기업 인수·합병(M&A) 자문 시장에서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올해 수조원에 달하는 거래들이 연이어 터지며 전체 거래 규모도 지난해와 비슷했다. 하지만 외국계 IB들의 자문 실적은 작년보다 줄었고 자문한 거래가 무산되는 사례들만 부각됐다. 골드만삭스·JP모건·도이치증권 등 그간 대형 거래를 주무르던 곳들도 자취를 감췄다. 블록딜이나 기업공개(IPO) 등 다른 부문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M&A 재무자문 1위 실적, 3조원대 그쳐

인베스트조선 M&A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올해 총 380건(경영권 이전 없는 주요 지분거래 포함, 합병·부동산 제외)의 거래가 일어났다. 전체 거래 금액은 약 44조원으로 집계됐다. 1조원 이상 대형 거래가 시장 규모를 이끌었다. 올해 진행된 대형 M&A는 8건으로 평년 수준이었다.

지난 1월 카카오가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발표하며 올해 M&A 시장 포문을 열었다. MBK파트너스의 두산공작기계 및 홍콩 워프T&T,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한앤컴퍼니의 쌍용양회공업, 삼성전자의 하만(Harman) 등이 손에 꼽히는 기업 인수 건이다. 최근 IMM프라이빗에쿼티 등의 우리는 행 소수 지분 인수도 일단락 됐다.

활기가 넘쳤던 시장과 달리 외국계 IB들은 침체된 시기였다. 리그테이블 발표기준 순위 1, 2위를 차지한 모건스탠리와 크레디트스위스(CS) 정도만 두각을 나타냈다.

두산DST 매각은 CS, 한화 인수 자문은 모건스탠리가 담당했다.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인수 자문도 모건스탠리였다. LG화학이 인수한 동부파란농의 매각자문사 역시 모건스탠리와 CS였다. CS는 금호타이어와 KDB생명보험 매각 자문사이기도 하다.

다만 이들도 누적 자문금액은 2조~3조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선두권 자문금액이 7조~8조원에 달했던 것과 대조된다. 외국계 IB들은 올해 신규로 나온 거래에서 자문 기회를 많이 놓쳤다.

◇대형 M&A에 초대받지 못한 외국계 IB…거래 무산 사례도 줄이어

재무자문사를 선임하지 않는 M&A부터가 잦았다. 대기업과 대형 사모펀드(PF)들은 인수 대상 기업 물색과 기업가치평가, 거래 구조 설계 등에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역량이 된다면 기업이 직접 나서는 것이 비용 및 보안 유지, 이해도 측면에서 유리하는 평가다.

카카오의 로엔엔터 인수 때 내로라하는 IB들은 초청받지 못했다. 카카오와 에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직접 협상을 시작해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도움만 받는 선에서 끝났다. 삼성전자의 프린팅사업부(에스프린팅솔루션) 매각과 하만 인수 역시 재무자문사가 없었다. 두 거래 모두 수조원을 웃도는 거래였지만 IB들은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몸집이 무겁고 수수료가 높은 대형 외국계 IB보다 중·소형 자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 거래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삼성전자-하만 거래에서 증명했듯 네트워크만 갖춰져 있다면 중소형사 또한 적은 인력으로도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M&A 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형사들의 경우 적은 인력이지만 하나의 딜에 전적으로 달라붙어 서비스를 하고 보안유지에도 수월하기 때문에 오히려 질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며 "PF, 로펌 업계 등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은 대형사 출신 인력들이 회사를 차려 프로젝트성 거래를 진행하는 것과 같이 IB업계 또한 이 같은 현상이 가속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무산된 거래들도 잇따랐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정부 승인 문체에 발목이 잡혔다. 약진통상과 ING생명보험은 경영권 매각이 아닌 IPO 등 다른 방안을 강구했다. 한화그룹과 LG화학이 추진했던 미국 컨티넨탈 스트러처럴 플라스틱(CSP) 인수, 넷마블게임즈의 플레이티카(Playtica) 인수와 IMM PE의 할리스커피 매각 등도 순항을 예상했으나 결국 접게 됐다.

◇'골드만·JP모건·도이치' 주춤…IPO·블록딜 등에 집중

지난해 두각을 나타냈던 IB들이 주춤한 점도 한몫 했다. 골드만삭스는 딜라이브 매각 주관 계약이 끝난 데다 코웨이 매각도 지지부진하다. 얼마 전 PCA생명 매각을 끝내고 대성산업가스 매각 자문을 떠내긴 했으나 지난해에 비하면 아쉬운 수준이다. 불과 1년 전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호텔신라의 미국 면세점 인수를 이끌었다.

JP모건도 위축된 모습이다. 연초 SC프라이빗에쿼티를 대리해 두산공작기계 인수에 나섰지만 막판에 두산그룹이 매수자로 MBK를 택하면서 자문 실적을 챙기지 못했다. 이후 약진통상과 로젠택배 매각도 우여곡절을 겪었다. 동양매직 매각 자문사 자리도 NH투자증권에 내줘야 했다. 일각에서는 작년 JP모건을 떠난 임석정 전 대표의 공백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도이치증권은 올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작년 리그테이블 1위 타이틀이 무색했다. IB부문 인력 변동 등 내부 부침도 겪었고 주 고객인 롯데그룹이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았다. IB부문 조만철 본부장 복귀 후 할리스커피 매각을 담당했지만 거래가 중단됐다.

씨티글로벌마켓증권도 비슷하다. 올해 CJ그룹이 터키 마르스엔터테인먼트와 중국 룡칭물류 인수를 도운 정도다.

오히려 IPO와 블록딜 등에서 아쉬움을 달랬다. 골드만삭스는 네이버 라인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대표주관사다. 호텔롯데 IPO에선 공동주관사다. JP모건도 두산밥캣, 아쿠시네트, 네이버 라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주관했다. 모건스탠리와 CS도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밥캣, 네이버 라인 등에 고루 주관사로 올라 있다.

일부 외국계 IB들 중에서는 크로스보더(Cross Border) 거래 자문 기회를 잡으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다른 관계자는 "외국계 IB들도 크로스보더 거래로 역량을 모으려는 분위기"라며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외국계 IB 장점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삼일PwC, 올해 회계자문 1위 수성

김은정·양선우 기자 | ejk0829@chosun.com

삼일PwC, 46건으로 1등 올라

상반기 선방한 딜로이트안진은 3위로

EY한영, 삼성 비주력사업 거래 참여 눈길

Buyout

● 회계 자문 (발표)

순위	자문	금액	건수	점유율(%)
1	삼일PwC	4,101,429	46	38.66
2	삼정KPMG	3,040,473	25	21.01
3	딜로이트안진	16,639,885	21	17.65
4	EY한영	4,542,717	16	13.45

● 회계 자문 (완료)

(단위: KR/백만원)

순위	자문	금액	건수	점유율(%)
1	삼일PwC	7,763,057	45	35.43
2	삼정KPMG	4,544,433	29	22.83
3	딜로이트안진	12,726,145	27	21.26
4	EY한영	7,840,122	19	14.96

Non - Buyout

● 회계 자문 (발표)

순위	자문	금액	건수	점유율(%)
1	삼일PwC	3,213,795	13	40.63
2	삼정KPMG	1,794,099	7	21.88
3	딜로이트안진	1,039,931	6	18.75
4	EY한영	909,351	5	15.63

● 회계 자문 (완료)

(단위: KR/백만원)

순위	자문	금액	건수	점유율(%)
1	삼일PwC	1,387,561	12	44.44
2	삼정KPMG	1,794,099	7	25.93
3	딜로이트안진	783,000	5	18.52
4	EY한영	607,351	3	11.11

*2016년 12월 12일 기준

올해 상위권 회계법인들의 회계자문 실사(Due Diligence) 순위는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었다. 삼일PwC는 예년처럼 다양한 딜에서 이름을 내비치며 선두자리를 지켰고 삼정KPMG는 중소형 딜에서 꾸준한 실적을 쌓으며 2위 자리에 올랐다. 딜로이트안진은 해외기업 거래 참여가 눈에 띄었다. EY한영은 삼성의 비주력사업부 매각과정에 참여하며 실적을 올려나갔다.

인베스트조선이 집계한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삼일PwC는 올해 경영권거래(Buyout) 발표기준으로 총 46건의 회계자문을 담당했다. 금액기준으로 4조1000억원 규모다. 이어 삼정KPMG(25건, 3조400억원), 딜로이트안진(21건, 16조6400억원), EY한영(17건, 5조9200억원)이 뒤를 이었다. 경영권거래 완료기준으로도 같은 순위였다. 삼일PwC(45건, 7조7600억원), 삼정KPMG(29건, 4조5400억원), 딜로이트안진(27건, 12조7300억원), EY한영(20건, 9조2200억원) 순으로 실적을 올렸다.

삼일PwC는 올해도 대우증권·산은자산운용, 두산인프라코어 공작기계사업부, 동양매직 매각과 같은 대형 딜의 회계자문을 맡았다. 현대증권 인수전에선 인수후보였던 한국금융지주 측의 회계자문을 담당했다. 올해 리그테이블에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현대시멘트·ADT캡스 거래에도 참여 중이다.

삼정KPMG는 중소형 거래에서 꾸준한 실적을 쌓으며 2위를 기록했다. 대우증권·산은자산운용, 두산인프라코어 공작기계사업 매각을 제외하곤 주로 1000억원 미만 거래의 회계자문을 맡았다. 조단위 대형딜의 자문사로써

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올해 매듭지어지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딜 중에선 경남에너지 매각전의 매각자문사로 참여 중이다.

딜로이트안진은 해외기업 거래에서 약진했다. 올해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CJ CGV의 터키 마르스엔터테인먼트 인수, CJ대한통운의 룡칭물류 인수 거래에서 인수측 회계자문을 맡았다. 국내 딜 중에선 대표적으로 어피니티 에쿼티파트너스와 카카오가 확보한 1조5000억원 규모 로엔엔터테인먼트 경영권 거래에 참여했다. 이밖에 다수의 사모펀드(PF) 운용사가 보유한 기업의 경영권 거래 참여도 눈에 띄었다.

EY한영은 삼성의 비주력 사업부 거래에서 주요 실적을 거뒀다. 삼성전자 프린팅사업부와 삼성SDI 케미칼 사업부 매각에서 각각 매각측·인수측 자문을 맡았다. 이외에도 로엔엔터테인먼트, 현대증권 매각전도 담당했다.

넌바이아웃(Non-Buyout) 부문에선 올해 YG엔터테인먼트, 레진엔터테인먼트, MG손해보험 등의 회계자문을 담당한 삼일PwC가 1위를 기록했고,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 EY한영이 뒤를 이었다.

내년에는 올해 마침표를 찍지 못한 대형 거래들이 줄줄이 진행된다. 대성산업가스화 현대시멘트 매각을 비롯해 딜라이브, ADT캡스 등의 대형 건들이 새 주인을 찾아 나서면서 4대 회계법인 간의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델 곳은 '삼성'뿐?...삼성 따라 해외 나간 회계법인

김은정·양선우 기자 | ejk0829@chosun.com

삼성, 인수·합병(M&A) 시장 비수기 속 홀로 '활발'

美 1위 '딜로이트' 등에 업은 안진...삼성 M&A 참여도 확대

삼성 출신 영입한 EY한영, 안진 다음으로 삼성 딜에 많이 거론돼

올해 회계법인들이 기델 곳은 '삼성'뿐이었다. 구조조정 딜이 많은 한해였지만 이는 클로징 시점이 불투명하거나 큰 돈벌이가 되지 않았다. 회계법인들은 늘어나는 삼성그룹의 해외 인수·합병(M&A)에 발맞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쏟아 나갔다.

올해 국내 10대 그룹이 진행한 M&A는 지난해보다도 별다른 특징이 없었던 가운데 삼성 관련 딜과 구조조정 딜은 활발히 진행됐다. 이에 M&A 시장의 양극화도 뚜렷해져갔다.

올해 삼성이 진행한 M&A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내 회계법인은 딜로이트안진이었다.

딜로이트안진은 올해 국내기업의 해외기업 M&A 사상 최대 규모라는 기록을 세운 9조원 규모의 삼성그룹-하만 인수과정에서 삼성측 실사(Due Diligence)를 담당했다. 미국 딜로이트와의 현지 공동작업이긴 했지만, 안진은 국내 기관 중 유일하게 이 딜에 이름을 올린 곳이었다.

삼성의 하만 인수는 회계법인 시장에서 삼성 딜이 가진 파급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이 딜로 안진은 올해 경영권 거래 금액기준으로 1위를 차지하게 됐다. 삼일PwC가 건수 기준으론 1위를 기록했지만, 금액 기준으론 삼성그룹-하만 1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조원 수준이었다. 안진은 삼성전자의 프린터사업부 매각과 미국 가전업체 데이코(Dacor) 인

수 때도 회계자문을 맡았다. 여기에 올해 핫딜로 꼽히는 카카오의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거래에서 매각측 회계자문을 맡았다. 올해 시장의 관심도가 컸던 딜 기준으로도 딜로이트안진의 이름이 가장 크게 부각됐던 셈이다.

국내에선 삼일PwC가 1위 회계법인이지만 미국시장에선 딜로이트가 1위 업체다. 미국시장에 강점이 있는 딜로이트가 뒤에 있다는 점은 안진의 삼성 M&A 참여에 있어 큰 원동력이 됐다. 안진 담당자들도 해외시장에서 '안진' 보다 '딜로이트'라는 브랜드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안진 관계자는 "크로스보더 딜은 글로벌 네트워크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며 "딜로이트 없이 삼성 딜을 따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했다.

최근 딜로이트안진이 주력하는 부분은 자문에서 딜 소송으로 옮겨가고 있다. 일단 딜 소송이 이뤄지면 자문을 담당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계산이다. 회사는 담당 파트너들에게 딜로이트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계된 M&A 딜 소송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 회계법인이 참여한 2016년 삼성그룹 주요 인수·합병(M&A) 건

거래명	거래 금액	매각자	회계법인	인수자	회계법인
하만(Harman)	80억달러(9조4000억원대)	하만그룹		삼성전자	딜로이트안진
삼성SDI 케미칼사업부	2조3265억원	삼성SDI	EY한영	롯데케미칼	딜로이트안진
삼성전자 프린터사업부	1조1729억원	삼성전자	딜로이트안진	휴렛패커드(HP)	EY한영
미국 데이코(Dacor)	1746억원	개인투자자		삼성전자	딜로이트안진

반면 삼일PwC에게 올해 삼성 M&A 참여는 어려운 이야기였다. 삼일PwC는 삼성그룹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다. 감사업무를 맡은 점이 영향을 끼치며 삼성 관련 딜에 있어서는 다른 회계법인들보다 참여도가 낮았다. 삼일PwC는 두산그룹과 동양매직 거래 등에 이름을 올리며 건수 기준으로 한 순위에서 1위 자리를 지켜나갔다.

삼일PwC의 빈자리는 EY한영이 메우고 있다. EY한영은 삼성SDI 케미칼사업부 매각에 회계·재무자문을 담당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조직체계를 바꾸며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영업을 강화한 점이 효과를 봤다.

한 EY한영 관계자는 "글로벌 파트너인 EY의 조직체계를 내부에 도입해 대기업 클라이언트별로 담당인원을 배치하고, 적극적으로 영업을 펼치는 작업이 주효했다"라며 "올초 삼성증권 출신도 영입하는 등 삼성에 대한 영업력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삼정KPMG는 올해 M&A 시장 트렌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삼성을 비롯해 대규모 딜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자문을 맡고 있는 ING생명의 지분매각 등의 딜이 어느 시점에 클로징 될지 불투명해 이렇다 할 트랙레코드(주요실적)를 쌓고 있지 못하다.

이 같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이 M&A 시장의 포식자 역할을 이어가는 가운데 진행 중인 구조조정 딜이 매듭지어지고 또다른 구조조정 딜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딜로이트안진이 최근의 감사부실 사태를 극복할지, 삼일PwC가 시장에서 독주를 이어갈지를 두고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앤장, '거래 건수'로 지켜낸 M&A 법률자문 '1위'

차준호 기자 | chacha@chosun.com

김앤장, 68건 자문 맡아 선두 수성
 광장, 메가딜 참여에도 건수 격차 커져
 세종·태평양·울촌 3위 놓고 각축

법률 자문 부문 선두는 올해도 '김앤장'이었다. 주요 상위 5개 법무법인 중 전년 대비 유일하게 자문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자문 건수 '1건' 차이로 김앤장을 톱까지 추격해온 광장은 올해 주요 대기업들의 '빅딜' 가뭄에 아쉬운 2등에 머물렀다.

2016년 인베스트조선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김앤장은 경영권거래(Buyout)에서 발표 기준 총 68건, 12조691억원에 이르는 자문을 맡아 점유율 23.78%를 기록했다. 완료 기준으로는 65건, 11조1998억원의 자문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비 자문 금액은 4조원 가까이 늘었고, 점유율은 약 5%p 상승했다.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인수, 두산인프라코어 공작기계사업부 거래, 휴렛팩커드(HP)의 삼성전자 프린트사업부 인수 등 조단위 딜에 자문을 맡아 실적을 거뒀다. 두산DST 매각, PCA생명보험 매각, CJ대한통운의 룡칭물류 인수 등 굵직한 거래에도 이름을 올렸다. 좋은상조(VIG파트너스)와 로젠택배(CVC캐피탈) 매각 등 국내외 사모펀드(PEF) 거래에도 활발히 참여했다.

광장은 발표 기준으로 4조9000억원(총 44건), 완료 기준으로 11조8512억원(48건) 규모의 자문을 맡아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점유율 기준 '소수점' 단위까지 김앤장을 위협했지만 올해엔 김앤장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 대우증권·산은자산운용 매각, 삼성SDI 화학사업부 매각, 현대증권 매각 등 1조 이상 대형 거래에서 김앤장과 대등한 성과를 거뒀지만, 총 거래 건수 격차 순위는 결정지었다.

강점인 대기업간 거래가 올해 얼어 붙은 점이 광장 입장에서 아쉬운 결과로 나타났다.

광장은 지난해 삼성-롯데간 화학계열사 거래, 롯데그룹의 KT렌탈 인수, CJ헬로비전 매각 등 '메가딜'을 휩쓸며 선두 김앤장을 위협했다. 올해엔 CJ헬로비전 거래 무산에 이어 주요 고객인 롯데그룹의 검찰수사 등 외부 악재까지 겹쳐 3분기까지 4위에 그쳤다. 4분기엔 현대증권, 동양매직의 매각 축 자문을 담당했고, 한화테크윈의 탈레스 지분 인수, LG화학의 GS이엠 양극재사업부문 인수, SK의 에셀코어 인수 등 대기업 관련 거래에 참여해 2위 자리를 탈환했다.

세종-태평양-울촌 간 3위 다툼은 올해도 치열하게 펼쳐졌다. 카카오의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 자문을 맡아 올해 인수·합병(M&A) 시장의 문을 연 세종은 이후 한앤컴퍼니의 쌍용양회 인수, CJ CGV-IMM PE의 터키 마르스 엔터 인수, 아쿠시네트 재무적투자자(FI)와 휠라코리아 간 지분 거래, 로젠택배 매각, SK네트웍스의 동양매직 인수 자문 등 고른 활약을 펼쳐 지난해 4위에서 올해 3위로 순위를 한 단계 올렸다. 울촌은 상반기까지 대우증권 인수, 두산DST 인수, 한라시멘트(舊 라파즈한라시멘트) 인수 등 굵직한 거래 자문으로 2위에 올랐지만, 하반기 다소 주춤하며 5위로 마감했다.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부문(Non-Buyout)에서도 상위 5개 법무법인의 순위는 그대로 유지됐다.

Buyout

● 법률 자문 (발표)

순위	자문	금액	건수	점유율(%)
1	김앤장	12,691,106	68	23.78
2	광장	4,904,673	44	15.38
3	세종	4,995,742	42	14.69
4	태평양	5,095,897	33	11.54
5	울촌	3,048,531	30	10.49
6	화우	965,411	18	6.29
7	케이씨엘	371,305	7	2.45
8	기현	1,710,793	6	2.10
9	KL파트너스	728,710	6	2.10
10	지평	251,785	6	2.10

● 법률 자문 (완료)

(단위: KR/백만원)

순위	자문	금액	건수	점유율(%)
1	김앤장	11,199,874	65	22.81
2	광장	11,851,247	48	16.84
3	태평양	6,798,612	39	13.68
4	세종	6,475,780	39	13.68
5	울촌	5,349,531	31	10.88
6	화우	971,584	17	5.96
7	기현	1,717,813	7	2.46
8	지평	293,985	7	2.46
9	KL파트너스	728,710	6	2.11
10	케이씨엘	284,037	5	1.75

*2016년 12월 12일 기준

Non - Buyout

● 법률 자문 (발표)

순위	자문	금액	건수	점유율(%)
1	김앤장	2,684,303	39	23.35
2	광장	2,649,856	25	14.97
3	태평양	2,569,696	23	13.77
4	세종	3,845,469	22	13.17
5	울촌	1,549,094	19	11.38
6	화우	245,808	12	7.19
7	케이씨엘	140,780	8	4.79
8	KL파트너스	185,408	7	4.19
9	기현	1,026,464	3	1.80
10	지평	325,500	3	1.80

● 법률 자문 (완료)

(단위: KR/백만원)

순위	자문	금액	건수	점유율(%)
1	김앤장	2,417,068	37	22.56
2	세종	2,342,735	25	15.24
3	광장	2,378,023	23	14.02
4	태평양	2,281,166	22	13.41
5	울촌	1,987,052	21	12.80
6	화우	226,308	12	7.32
7	KL파트너스	185,408	7	4.27
8	케이씨엘	139,500	7	4.27
9	기현	1,026,464	3	1.83
10	지평	228,754	2	1.22

*2016년 12월 12일 기준

압도적 '숫자'에도 '위기설' 사그라지지 않는 김앤장

차준호 기자 | chacha@chosun.com

'상향 평준화' 가속화된 법률 자문 시장

영향력·규모 모두 압도했던 김앤장...위상 유지 직면

빅딜 가뭄기에 맞춘 '체질변화' vs '궁여지책'...시각 교차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닐' 정도로 치열했던 지난해 상위 로펌 간 경쟁 구도와 달리, 올해 인수·합병(M&A) 법률 자문 시장은 일찌감치 김앤장의 독주로 마감했다.

하지만 김앤장의 '데이터'와 별개로 "이전 같지 않다"는 업계 내 분위기는 식지 않고 있다. 조 단위 큰 장이 이전만큼 열리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김앤장이 과거처럼 다른 후보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세대교체와 인력 이탈이라는 고질적 과제도 남겨진 상황에서, 김앤장 '브랜드' 유지에 대한 고민도 병행될 전망이다.

● 김앤장 주요 M&A 자문 리스트

거래명	거래 금액	매각자	매각자문사(로펌)	인수후보	인수자문사	인수성사여부
현대증권**	2조4838억원	현대상선 외	광장	KB금융지주	김앤장	0
에스프린팅솔루션 (삼성전자 프린터사업부)	1조1729억원	삼성전자	태평양 외	휴렛패커드(HP)	김앤장 외	진행중
두산인프라코어 공작기계사업부	1조1308억원	두산인프라코어	김앤장, 기현	MBK파트너스	김앤장	0
터키 마르스 엔터테인먼트	7970억원	터키 내 PEF 등	김앤장 외	CJ CGV, IMM PE	세종	0
카버코리아	4169억원	이상록	광장	골드만삭스-베인캐피탈	김앤장 외	0

**Non-buyout 거래 포함 금액, buyout 단독 금액 1조2500억원
*경영권 이전 거래(buyout) 기준, 부동산 및 계열사내 거래 제외
*2016년 12월 12일 기준

◇'건수'는 분명 압도적인데...의미 있는 거래는?

인베스트조선의 M&A 법률자문 리그테이블(부동산·그룹 내 계열사간 거래 제외)에 따르면 올 한해 김앤장은 총 65건, 11조1998억원에 달하는 자문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턱밑까지 좁혀졌던 2위 율촌과의 격차도 17건까지 벌리며 선두를 유지했다.

1조원 규모 이상 주요 '빅딜'의 경우, 김앤장은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인수(1조2500억원)·HP의 삼성전자 프린터사업부 인수(1조1728억원)·두산인프라코어 공작기계부문 매각(1조1308억원)에 법률 자문을 맡았다. CJ그룹의 터키 마르스엔터 인수·통칭물류 인수 등 수천억 규모 중형 거래에서 좋은상조(650억원), 알파칩스(369억원), 울트라건설(208억원) 등 소형 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실적을 끌어 올렸다.

하지만 무게감 측면에서 경쟁자들과 차별화를 보이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단위 거래의 경우 차순위 광장은 김앤장을 상대해 현대증권 매각 자문을 맡았고, 삼성SDI 화학 사업부의 롯데케미칼 매각(2조3265억원), 대우증권 및 산은자산운용 패키지 매각(2조3846억원) 법률 자문을 담당했다.

오비맥주와 ADT캡스 두 대형 거래로 일찌감치 '숫자'와 '영향력' 측면에서 다른 후보들의 추격을 무력화시켰던 과거의 김앤장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형 거래 실종과 비례해 자문 실적도 꺾인 타 로펌들과 달리, 안정적으로 선두를 지켜낼 정도로 체질 변화에 성공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반면 인력은 경쟁사 대비 두 배 가까운 상황에서, 큰 장은 안서는 가운데 '궁여지책'을 찾고 있다는 부정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규모와 자문 금액 이전에 '수익성'을 묻는 시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기존 인력이 지속해서 이탈하면서 M&A를 담당할 신규 변호사 육성에 나서야 하다 보니 코스닥 상장사 등 중·소형 거래에서까지 공격적으로 가격을 인하해 참여한다는 불만들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송무·소송 등 다른 파트에서 수익성이 월등히 좋다보니 M&A자문에선 일부 적자를 보더라도 실적을 위해 싸게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하지만 벌충해 주는데도 한계가 있다보니, 이전 같은 처우 보장이 어렵고 이에 따라 지속된 인력 유출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경쟁 심화에 하만 '쇼크'로 경쟁 환경 악화...내부 세대교체 속제도

결국 김앤장이 그간 시장을 압도해온 선두 로펌에 걸맞은 위상을 다시 보여야 한다는 평가다. 하지만 국내·외에서의 경쟁 상황은 쉽지 않은 환경이다.

아웃바운드(Outbound) M&A에선 김앤장이 여전히 특화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삼성의 9조원 규모 '하만' 인수과정에서 '왁텔' (Wachtell, Lipton, Rosen & Katz)과 '폴 헤이스팅스' (Paul Hastings) 등 글로벌 로펌에 밀려 소외됐다. 이와 같은 '직거래'가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향후 글로벌 M&A 시장 변화의 불씨가 될 경우 충격이 가장 큰 곳은 김앤장이 될 것이라 시각이다.

특정 산업 및 딜 구조에 특화된 개별 변호사·팀 단위 경쟁력도 점점 부각되면서 김앤장 '브랜드'에 대한 위협은 점차 커지고 있다. 주요 대기업 거래에선 올해도 각각 삼성(태평양), LG(광장), SK(광장·세종), 롯데(광장) 전담하는 모습 보이면서 쓰던 로펌을 계속 쓰는 관행도 더 굳어졌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김앤장이 카운터파트에 있기도 했고, 업무를 맡기도 했었는데, 퀄리티 부분에서는 여전히 흠잡을 수 없이 깔끔했지만 가격은 확실히 비쌌다"라며 "최근엔 각 산업과 구조별로 다른 로펌에도 개인·팀마다 전문 분야가 축적됐었기 때문에 김앤장 '브랜드'를 찾는 경향은 다소 줄어든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창업자 김영무 변호사의 뒤를 이어 회사를 이끌어 나갈 세대교체라는 오랜 과제도 있다. 이미 광장·세종·태평양 세대 교체에 마친 점과 비교했을 때 일정 정도 혼란기를 겪을 것이라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점점 내부에서 세대교체를 준비하면서 2세에게 일부 관리를 맡기다 보니 내부 반발도 있었고, 회사를 나가더라도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라며 "특정 사법시험 기수가 아니라 '90학번' 이상 나이로 끊어 '역시 김앤장은 글로벌하다'는 농담도 회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슬림화로 경쟁력 있게 가야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력 유지에 대한 고민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앤장 관계자는 "각 사건 수임 별로 고객이 효율적으로 업무 진행을 요구하고 고객 내 인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라도 시간이 줄어드니 수수료를 적게 받아도 되는 것이지 김앤장이 정책적으로 저가 정책을 펴거나 특별히 손해보면서까지 거래를 하진 않는다"라며 "인력 유출 문제도 워낙 기준에 인력이동이 없었다보니 부각되는 것이지, 위기로까지 받아들이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NH證, 2년 연속 M&A 인수금융 주선 1위

위상호 기자 | wish@chosun.com

NH證, 홉플러스·ING생명 등 매년 최대 거래 참여

KB국민銀, ING생명 5900억 주선하며 간발의 차 2위

KEB하나銀·한투證 순위 상승...신한銀·산업은행은 주춤

● 전체 주관

순위	주관사	금액	건수	점유율(%)
1	NH투자증권	1,168,400	8	12.15
2	KB국민은행	1,165,833	9	12.12
3	KEB하나은행	1,015,253	13	10.55
4	우리은행	823,200	6	8.56
5	한국투자증권	749,699	7	7.79
6	삼성증권	674,266	7	7.01
7	하나금융투자	631,642	7	6.57
8	신한은행	602,833	7	6.27
9	현대증권	601,697	6	6.26
10	NH농협은행	543,400	6	5.65
11	산업은행	461,000	5	4.79
12	미래에셋증권	422,660	5	4.39
13	신한금융투자	309,500	6	3.22
14	기업은행	282,333	3	2.94
15	농협중앙회	54,000	1	0.56

● 전체 인수

(단위: KR/백만원)

순위	주관사	금액	건수	점유율(%)
1	NH투자증권	854,150	7	8.91
2	한국투자증권	651,032	11	6.79
3	NH농협은행	568,000	8	5.92
4	삼성증권	526,600	7	5.49
5	현대해상	500,250	12	5.22
6	산업은행	488,000	9	5.09
7	중국공상은행	368,300	7	3.84
8	KB국민은행	331,300	10	3.46
9	신한은행	315,000	10	3.29
10	기업은행	303,200	9	3.16
11	KEB하나은행	292,250	12	3.05
12	농협중앙회	249,000	5	2.60
13	우리은행	231,700	6	2.42
14	신협중앙회	222,000	5	2.32
15	새마을금고중앙회	221,750	6	2.31

*금액이 비공개일 경우 0원으로 반영
*2016년 12월 12일 기준

NH투자증권이 2년 연속 국내 인수·합병(M&A) 인수금융 주선 1위에 올랐다. 지난해 홉플러스(4조3000억원)와 한라비스테온공조(1조9000억원) 등 조(兆)단위 거래에 이어, 올해도 최대 규모인 ING생명보험 리캡(1조1900억원)에 이름을 올리며 독주 체제에 들어갔다.

인베스트조선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올해 국내 인수금융 주선 규모는 9조 6200억원으로 지난해 11조4500억원에 비해 2조원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 NH투자증권과 신한은행이 2조원 이상을 주선하는 등 6곳이 조단위 실적을 쌓은 반면, 올해는 세 곳만 1조원을 간신히 넘겼다.

지난해는 홉플러스, 한라비스테온, ADT캡스(1조5000억원) 등 조단위 거래가 잇따랐지만 올해는 주춤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5000억원 이상 거래는 ING생명 리캡과 한앤컴퍼니의 쌍용양회 인수(7800억원), 카카오의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8000억원), MBK파트너스의 두산인프라코어 공장기계사업부 인수(6600억원), 미래에셋증권의 미래에셋대우 인수(6000억원)에 그쳤다.

NH투자증권은 ING생명 리캡 외에 쌍용양회 인수금융 주선사로 참여했다. 박삼구 회장의 금호산업 인수에 단독으로 백기사로 나선데 이어 금호기업의 금호터미널 인수금융도 단독 주선했다. 주선과 인수 실적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7위에 머물렀던 KB국민은행은 NH투자증권에 수십억원 뒤진 2위에 올랐다. ING생명 리캡 거래에서 공동 주선사 중 가장 많은 5900억원을 책임진 영향이 컸다. 팬오션을 공동 인수했던 제일홀딩스와 JKL파트너스의 인수금융 리파이낸싱 거래도 모두 참여했다.

지난해 합병 후 시너지 효과를 내며 5위에 올랐던 KEB하나은행은 올해 순위를 더 끌어올렸다. 주선 및 인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쌍용양회 인수금융, IMM인베스트먼트의 현대부산신항만 재투자(2300억원), 동원그룹의 스타 키스트 리파이낸싱(2200억원)을 주선했다. 휠라코리아의 재무적투자자(FI) 보유 아쿠시네트 지분 인수금융(3100억원) 공동 주선사로도 참여했다.

우리은행은 글랜우드PE와 베어링PEA 컨소시엄의 한라시멘트 인수금융 브릿지론(3600억원), 리파이낸싱(2900억원) 주선을 잇따라 진행했다. 두산인프라코어 공장기계 사업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의 버거킹 인수금융(1000억원)도 공동 주선했다. 과점주주 방식 매각이 추진되는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작년보다 활발한 한 해를 보냈다.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금융 절반을 책임졌고, 연관 거래인 어피니티의 카카오 지분 인수금융(2550억원)도 진행했다. 휠라코리아 아쿠시네트 인수금융 공동 주선사로도 활약하며 작년보다 4계단 오른 5위를 차지했다.

신한은행과 산업은행은 주춤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2위에서 8위로 미끄러졌다. 한라비스테온, 홉플러스에 참여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미래에셋증권의 미래에셋대우 인수금융(6000억원)과 제일홀딩스 팬오션 인수금융 절반씩을 맡은 외엔 대형 실적이 뜸했다. 상반기 내내 딜라이브 인수금융 출자전환 및 채무조정 매달린 여파가 컸다.

지난해 주관 6위, 인수 1위를 차지했던 산업은행도 뒷걸음질 쳤다. 두산DST, 두산인프라코어 공장기계, 금호고속, 아쿠시네트 등 공동주선 실적에도 10위 밖으로 밀려났다.

인수금융 주선 시장...상반기엔 리파이낸싱, 하반기엔 소형 거래만

위상호 기자 | wish@chosun.com

70% 이상 몰린 상반기, 리파이낸싱·리캡 거래가 절반
하반기 신규 거래 비중은 늘었으나 주선 규모는 축소
내년 주선 시장도 위축 가능성...금리 변동성도 변수

올해 인수·합병(M&A) 인수금융 시장은 상반기와 하반기의 분위기가 뚜렷하게 갈렸다. 상반기엔 리파이낸싱이나 사모펀드(PEF)의 차입형 자본재구조화(리캡)와 같이 기존 거래에 기반한 성격의 주선 비중이 높았다. 하반기엔 상대적으로 신규 거래가 많았지만 대부분 소규모였다. 갈수록 위축되는 투자 심리를 반영했다.

인베스트조선이 2016년 인수금융 실적을 집계한 결과 국내 금융회사들은 올해 9조6000억원(탐론, 한도대출 포함)을 주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만 7조1000억원의 주선 실적이 몰렸다. 카카오의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 한앤컴퍼니의 쌍용양회 인수, MBK파트너스의 두산인프라코어 공장기계사업부 인수 등 5000억원 이상 대형 신규 인수금융 거래가 있었다.

상반기엔 '재활용' 성격의 거래가 많았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동원그룹 스타키스트 인수금융 세 번째 리파이낸싱 등 일반 기업관련 거래도 있었

지만 주로 PEF 관련 거래가 많았다. 기존 인수금융의 연장이나 금리 인하는 물론 투자회수 목적의 리캡 등 거래가 절반에 달했다. 회수가 어려운 거래의 시한 연장 성격도 있었다.

MBK파트너스는 1조1900억원 규모 ING생명보험 차입을 새로 일으켜 조건을 조정하고 출자자(LP)에 대한 배당 재원도 마련했다. 올해 매각한 HK저축은행(375억원)과 네파(528억원) 인수금융 리파이낸싱도 이뤄졌다.

IMM PE는 할리스F&B 리캡을 통해 출자금 일부를 조기 회수했고, IMM인베스트먼트는 현대부산신항만에 재투자하며 인수금융(2300억원)도 갹신했다. 한앤컴퍼니는 대한슬래그 담보가치 상승에 따라 배당 목적의 추가 차입금을 조달했다. 자기자금으로 JB금융지주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했던 앵커에쿼티 계열 주빌리아시아는 차입금(440억원)을 조달해 일부 출자금을 회수했다.

● M&A 인수금융 시장 분석

구분	건수 및 금액	주요 거래
상반기	27건 7조1000억원	* 신규 거래(14건) - 카카오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8000억원) - 한앤컴퍼니 쌍용양회 인수(7800억원) - MBK파트너스 두산인프라코어 공장기계사업부 인수(6600억원)
		* 리파이낸싱·리캡 거래(13건) - 동원그룹 스타키스트(2197억원, 3번째 리파이낸싱) - MBK파트너스 ING생명(1조1900억원)
하반기	25건 2조5000억원	* 신규 거래(16건) - 베인캐피탈 컨소시엄 카버코리아 인수(1485억원) - SC PE 코오롱위터앤에너지 인수(707억원)
		* 리파이낸싱·리캡 거래(9건) - 제일홀딩스 팬오션(3300억원) - VIG파트너스 바디프랜드(2150억원) - IMM PE 한독약품(400억원)

*2016년 12월 12일 기준

하반기에도 제일홀딩스와 JKL파트너스의 팬오션 인수금융(합쳐서 4050억원), VIG파트너스의 바디프랜드와 에누리닷컴(400억원), IMM PE의 한독약품 등 리파이낸싱과 리캡 거래는 이어졌으나 상반기에 비하면 신규 거래 비중이 높았다.

다만 새 거래들의 규모는 크지 않았다. 휠라코리아의 아쿠시네트 재무적투자자(FI) 지분 인수, 중국 핑안그룹 컨소시엄의 뉴스킨(Nu Skin) 전환사채 인수(약 1600억원), 베인캐피탈-골드만삭스 컨소시엄의 카버코리아 인수 정도를 제외하면 해피콜(850억원), 코오롱위터앤에너지(707억원), 아펠가모(140억원) 등 대부분의 주선 실적이 1000억원을 밑돌았다. 경제 침체와 정국 불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하반기에 나타난 특징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 전망과 투자 심리가 갈수록 악화하는 형국이라 M&A와 그에 부수하는 인수금융 거래 역시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기존 거래를 다시 끄집어 내거나 작아지는 파이를 서로 차지하려는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변동에 따른 영향도 예단하기 어렵다. 미국이 12월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추가 인상도 예고한 반면, 우리나라는 인하와 인상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금리가 내려간다면 금융회사들은 추가 리파이낸싱 기회를 노릴 수 있지만, 올라간다면 그마저도 어려워진다. 이미 저금리에 길들여진 차주들이 금리 상승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인수금융 업계 관계자는 “상반기엔 새로운 거래가 적었고, 하반기엔 새로운 거래는 있었지만 그 규모가 쪼그라들었다는 것이 올해 인수금융 시장의 특징이었다” 며 “M&A가 경제 전망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인수금융 주선 시장은 올해보다도 어려워질 것” 이라고 말했다.

국내기업 '해외로'...역동성 떨어진 국내 M&A 시장

이서윤 기자 | syoon@chosun.com

아웃바운드 거래 15兆, 전년비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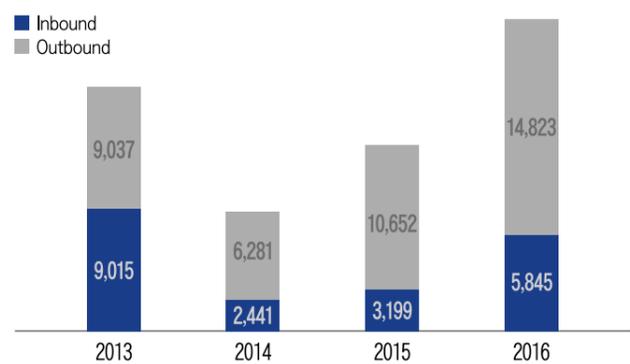
新수익원 찾아 해외 기업 쇼핑...쌈씀이도 커져

국내선 그룹 간 '빅딜'不在...구조조정 성격 M&A만 잇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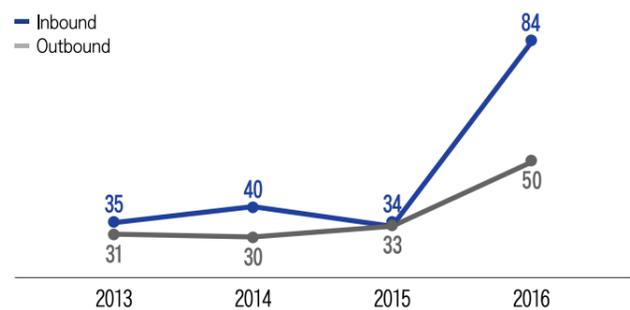
국내 대기업들이 새로운 수익원 발굴을 위해 해외기업 인수를 늘리면서 올해 아웃바운드(Outbound) 거래 건수와 규모 모두 평년 수준을 웃돌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기술력 있는 회사들을 사들였고 올해도 그 흐름을 유지했다. CJ그룹도 각 계열사 별로 해외 기업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반면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은 역동성이 떨어진 모습이다. 재무 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이 내놓는 매물만 많았고 기업 간 거래는 활발하지 않았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이어지고 성장이 둔화되면서 앞으로도 기업들은 국내 투자보다는 글로벌 M&A를 확대할 것이라 관측이다.

● 최근 4년간 크로스보더 M&A 규모



● 최근 4년간 크로스보더 M&A 거래 건수



◇新수익원 찾아 해외 기업 쇼핑...쌈씀이도 커져

2016년 인베스트조선 M&A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올해 총 134건, 약 20조 6680억원의 크로스보더(Cross Border) M&A가 이뤄졌다. 아웃바운드 거래는 평년보다 20건가량 늘어난 5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아웃바운드 거래 금액은 약 14조8225억원에 달해 지난해(10조6000억원)에 비해 급증했다. 금액만 놓고 보면 인바운드(Inbound)보다 크다. 2012년 이후 해외 광구나 에너지 관련 투자를 빼면 조(兆)단위 아웃바운드 거래는 드물었다. 2013년 삼성디스플레이가 2조4000억원을 들여 미국 코닝(Corning) 지분 매입을 결정한 것이 단일 건으로 가장 큰 투자였다.

삼성전자의 씬스이가 커진 점이 주효했다. 올해 삼성전자가 9조4000억원에 하만 인수를 결정하며 사상 최대 규모 크로스보더 거래로 기록됐다. 미국 고급 가전회사인 데이코(Dacor)와 중국 전기차 부품업체 비야디(BYD) 지분 인수 등 9건의 크고 작은 거래를 진행하며 분주한 시기를 보냈다.

CJ그룹도 해외 시장을 자주 찾았다. CJ대한통운은 연초 중국 룡칭물류 거래를 매듭지은 뒤 베트남 1위 물류사인 게마덱트(Gemadep Corporation) 인수를 검토했다. CJ CGV도 터키 마르스엔터테인먼트 인수에 8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쏟아 부었다. 말레이시아 최대 극장체인인 골든 스크린 시네마(GSC) 인수에 나서는 등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다.

CJ제일제당은 중국 메이화성우 인수 계획을 밝혔고 미국 냉동식품 회사 벨리시오 푸드(Bellisio Foods) 인수를 추진하기도 했다.

2대 주주인 외국계 투자자 지분을 사들인 경우도 있었다. 한화테크윈은 프랑스 탈레스(Thales International S.A.S)가 들고 있던 한화탈레스 지분 절반을 확보했다. 현대자동차는 현대캐피탈 지분 43%를 사오며 미국 GE캐피탈과 합작 관계를 청산했다.

● 올해 기업들이 추진한 주요 아웃바운드 M&A 현황

회사명	국적	인수 추진회사
마르스엔터테인먼트	터키	CJ CGV
골든스크린시네마	말레이시아	CJ CGV
게마덱트	베트남	CJ대한통운
벨리시오 푸드	미국	CJ제일제당
데이코	미국	삼성전자
비야디	중국	삼성전자
하만	미국	삼성전자
호른슈크	독일	LG하우시스
컨티넨탈 스트럭처럴 플라스틱	미국	LG하우시스, 한화첨단소재
플레이티카	미국	넷마블게임즈
상하이 세코	중국	SK이노베이션
액시올	미국	롯데케미칼
빅씨	베트남	롯데쇼핑

◇한화·LG·롯데도 해외로...외면 받는 국내 M&A 시장

아웃바운드 M&A 증가 추세는 가속화할 전망이다. 삼성과 CJ그룹 외에도 국내 기업이 해외 M&A에 명함을 내민 사례는 빈번했다. 미국 컨티넨탈 스트럭처럴 플라스틱(CSP) 매각에 한화와 LG그룹이 동시에 출사표를 냈다. LG하우시스는 독일 호른슈크(Hornschnuch) 인수도 준비했다. 넷마블게임즈는 글로벌 소셜카지노 기업 플레이티카(Playtica)를 두고 미국과 중국계 후보들과 경쟁했고 최근 약 1조원에 달하는 카밤의 벤쿠버 스튜디오 인수도 확정했다.

해외 M&A '큰 손'인 롯데그룹은 검찰수사 여파로 주춤했지만 미국 석유화학 업체 액시올(Axial) 및 베트남 유통사 빅씨(Big C) 등 인수를 검토했다. SK이노베이션은 상하이 세코(Shanghai Secco) 지분 인수 작업 마무리 단계에 있다.

반면 기업 간 거래는 잠잠했다. 한화테크윈이 두산DST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현대백화점이 SK네트웍스 패션사업부를 인수한 것 외에는 눈에 띄는 거래가 없었다. 신사업 확장을 위한 인수 시도부터 드물었고 그룹 간 '빅딜(Big Deal)'도 부재했다.

정치적 변수가 걸림돌로 지목된다. 올해 롯데그룹의 검찰수사에서는 그간 추진했던 M&A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되면서 시장을 위축시켰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무산뿐 아니라 최근 삼성과 한화그룹 간 방산 계열사 거래가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되는 등 M&A를 통한 재계의 자발적 구조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다.

결국 국내 M&A 시장에 재무개선 목적의 거래들만 주를 이룰 것이라 관측이다. 올해 거래금액 기준 상위 10대 바이아웃 거래들 다수가 구조조정 성격이었다. 현대증권과 현대부동산한, 두산인프라코어 공작기계 사업부, 두산건설 배럴회수보일러 사업부 등이 대표적이다.

M&A업계 관계자는 "국내에는 마땅한 매물이 없어 M&A 시장이 경직될 수밖에 없다"면서 "삼성과 한화, LG, CJ, 롯데 등 주요 기업들이 해외 투자 기회만 물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국내 정치적 이슈에 그룹들이 발목을 잡히지 않았다면 아웃바운드 투자는 더욱 늘어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뿐만 아니라도,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새로 인수할 매물이나 자산이 몇 개나 있겠느냐"며 "인수 거래는 유럽이나 미국, 혹은 동남아든 무조건 크로스보더 거래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 설립된 조선일보 미디어그룹의 캐피털마켓 미디어입니다.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인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점검합니다.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ELB발행, 인수합병(M&A), 회사채 발행과 구조화 상품활용, 주가 움직임 등을 다채롭게 분석하여 심도 있는 투자정보가 되는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경영활동 움직임과 지배구조 개편, 주요 산업의 흐름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책을 분석합니다.

단순히 시장의 흐름과 이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이를 유효한 데이터로 모아 축적하고 관리하고 분류해 시장 전반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1. 홈페이지 뉴스 서비스

홈페이지 (www.investchosun.com)를 통해 심도 있는 분석 기사를 매일 아침 주요 섹션별로 나눠 제공합니다. 두고두고 읽을만한 기사는 Editor's Choice를 통해 독자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인포그래픽

기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베스트조선'을 구축,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트위터·네이버 라인·카카오톡과의 연계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또 다양한 인포 그래픽을 제작하여 주요 기사와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조선일보 경제부문 통합 애플리케이션 'e조선경제'

조선일보 경제부-조선비즈 등과 함께 경제전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e조선경제'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매일 'Invest chosun 인베스트'라는 메뉴를 통해 주요 기사를 제공합니다.

4. 조선일보 내 독자섹션 지면 발간

조선일보 내 독자섹션을 매일 발간하고 있습니다.

5. 증권거래소 운영 '코스콤'에 경제 데이터 제공

증권거래소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증권금융 인프라 회사 '코스콤' (옛 한국증권전산)에 공식적으로 자본시장 관련 통계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채권발행 등과 관련해 매주 인베스트조선이 집계한 금융회사들의 순위평가표 (리그테이블)가 코스콤에 서비스 됩니다.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인베스트조선은 유료회원제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인베스트조선이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절차

1. 회원가입 신청

www.investchosun.com에서 회원가입신청서 다운로드 후 investid@chosun.com으로 전송
(법인회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Fax 전송)

2. 유료서비스 결제

가입신청서를 e-mail로 전송 후 회신 메일의 가입 절차 안내에 따라 '유료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

3. ID/PW 발급

회원 가입 및 입금 확인후 사이트 관리자가 ID/PW를 이메일로 통보

4. 서비스 이용

로그인 화면에서 로그인 후 서비스 이용가능
(생성된 ID는 곧바로 사용가능)

문의처

02-3789-9711
investid@chosun.com

금융에 대한 다른 생각 원칙, 고집, 열정의 합이 차이를 만듭니다



금융에 대한 바른 생각에
고집을 더합니다

고객을 향한 옳은 마음에
열정을 더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이 금융의 길에
원칙을 더합니다

금융의 바른 길
옳음의 합이 차이를 만듭니다

• ECM

(단위 : 억원)

구분	종목	납입일	규모
삼성바이오로직스	IPO	2016-11-07	22,496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	2016-02-17	12,652
삼성중공업	유상증자	2016-11-15	11,409
두산밥캣	IPO	2016-11-11	9,008
BNK금융지주	유상증자	2016-01-22	4,725
한화	유상증자	2016-10-05	3,820
한국자산신탁	IPO	2016-07-05	2,812
한화건설	EB	2016-06-03	2,500
한화투자증권	유상증자	2016-09-26	2,000
아이에스동서	CB	2016-05-17	2,000

• DCM

(단위 : 억원)

채권명	발행목적	발행일	발행액
롯데케미칼 52	SDI케미칼 지분 인수	2016-04-18	7,600
CJ제일제당 21	차입금 상환	2016-02-26	6,000
현대제철 117	운영 및 차환자금	2016-01-27	5,500
포스코 307	운영 및 차환자금	2016-05-03	5,000
LG전자 79	운영 및 차환자금	2016-09-06	4,600
LG전자 78	시설 및 운영자금	2016-02-24	4,500
KT 189	차환자금	2016-01-28	4,000
SK 276	운영 및 차환자금	2016-03-07	4,000
SK 277	차환자금	2016-06-01	4,000
SK 278	운영 및 차환자금	2016-09-07	4,000

• M&A

(단위 : 억원)

대상	인수자	계약일	인수금액
하만 인터내셔널	삼성전자	2016-11-14	93,385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및 운용	2016-01-25	23,846
로엔엔터테인먼트	카카오	2016-01-11	15,063
S프린팅솔루션	휴렛팩커드	2016-09-12	11,729
현대증권	KB금융지주	2016-05-31	10,714
터키 마르스 엔터테인먼트	CJ CGV, IMM PE	2016-04-04	7,970
동양매직	SK네트웍스	2016-09-30	6,100
현대로지스틱스	호텔롯데 및 계열사	2016-05-30	4,970
카버코리아	베인캐피탈-골드만삭스	2016-06-16	4,169
유피케미칼	야커커지	2016-08-26	1,972

*2016년 12월 12일 기준



The Banker
Bank of the Year 2016
SOUTH KOREA
The Banker誌 (더 뱅커지)
'2016년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 선정

금융부터 특, 포인트, 마켓, 게임, 음악까지 강력한 즐거움이 하나로 뭉쳤다!

- 위비뱅크**
공인인증서 필요없는 송금부터 간편한 대출, 환전까지! 누구에게나 쉬운 모바일 전문은행
- 위비톡**
귀속말, 평메시지, 게임, 여행, 맛집/제테크정보 등 즐거움이 가득한 모바일 메신저
- 위비멤버스**
우리은행, 우리카드 포인트를 하나로 모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통합멤버십 서비스
- 위비마켓**
우수 중소기업 상품에 여행, 금융, 보험까지! 핫아이템들이 착한가격으로 기다리는 모바일 오픈마켓

League Table

2016 Korea Capital Market

| 함께라서 좋은 사이 ④



“난 이담에 아빠랑 결혼할 거야”
지키지 못할 약속인 줄 알면서도
들을 때마다 힘이 솟는다

[함께] 행복을 만드는 국민
KB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KB 국민은행
KB 국민카드
KB 자산운용
KB 부동산신탁
KB 데이터시스템

현대증권
KB 투자증권
KB 캐피탈
KB 인베스트먼트

KB 손해보험
KB 생명보험
KB 저축은행
KB 신용정보

